

第289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2010年4月2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

1. 제28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4.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5.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附議된案件

1. 제28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안상수·이강래·류근찬·노철래 의원 외 278인 제출) 1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안상수·이강래·류근찬·노철래 의원 외 278인 제출) 1
4.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
5.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3

(14시07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지금 방청석에는 이화수 의원의
소개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지역구민 45인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14시09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국회(임
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국회(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서 제안한 대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
성한 4월 30일까지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단말
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안상수·이강래·류근찬·노철래 의원 외 278
인 제출)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안상수·이강래·류근찬·노철래 의원
외 278인 제출)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
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
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정훈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의 정부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0년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0년 4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010년 4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오후 4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2010년 4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째, 2010년 4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4시14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대리 안민석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30일 일본국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일본국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로서 엄중한 규탄함과 아울러 즉각 사회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국 정부는 사회교과서 검정승인이 국제법 질서에 위반되고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기본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일본국 정부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 교과서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오만한 역사 인식을 지속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며

일체의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일본국 정부의 사회교과서 검정승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발상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검정승인 취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아시아 각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병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을 기표했는데 잘못됐다고……)

예, 정정 요청서에 기재하시면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형환 의원도 마찬가지로……

(○안형환 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권영길 의원하고 강승규 의원……

아까 기권 표였는데, 어쨌든 요청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5.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14시19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5항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긴급현안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질문 의원은 총 일곱 분으로 하고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연락…… 통보 결과를 아마 우리 홍 의원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의사진행발언 관계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희덕 의원 의석에서 — 비교섭단체의 기회를 너무 박탈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나오세요.

○김동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동 을 출신 한나라당 김동성입니다.

먼저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 수여하기로 한 훈장이 너무 낮아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장관께서는 훈장을 격상을 해서 준전시에 수여하는 화랑이나 충무 등의 무공훈장을 수여할 것을 건의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주호 준위에 대한 포상 문제는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속초함과 천안함이 제2함대 기지에서 출항을 한 것이 언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속초함은 3월 22일에, 천안함은 3월 16일에 출항하였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속초함과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까지는 왜 갔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원래 천안함과 속초함은, 그쪽에 저희가 4개 구역으로 쪼개 가지고 지역을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함정, 대략 한 1000t급 이상 함정 네 척이 각각 구역을 담당해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두 함정이 그 중에 2개 지역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함은 백령도 서측 지역을 주로 담당을 하고 속초함은 연평도와 대청도 사이의 지역에서 경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두 함정이 그곳에 간 것은 함대사령부의 어떤 임무와 명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일 텐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임무와 명령이 뭐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임무와 명령은 평시에 저희가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작전 지역에 대한 경비 임무입니다.

○**김동성 의원** 그곳이 평소 잘 안 다니는 곳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늘 저희가 작전지역으로 계속, 물론 가끔씩 조정을 합니다마는…… 되어 있는 곳으로서 늘 거기에는 경비 함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장관은 ‘피항 차원에서 간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계 활동의 일환으로 왔다 하고, 지난번에는 피항 차원에 간 거라고 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백령도 인근으로 천안함이 많이 다가갔던 그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그때 제가 피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이…… 그거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풍량이 셧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최근에 지난번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이 보복을 하겠다고, 그 사항을 하면서 뭔가 저희를 공격하는 방식을 바꿀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공격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위 백령도, 좀 저희 반대쪽으로 그 쪽으로 부대를 배치한다든가 하는 걸 저희 작전적으로 좀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성 의원** 그 새로운 공격방식이 뭐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 공격방식은, 이걸 제가 저희의 군사적인 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던,

즉 함대함을 벗어나서 소위 지대함미사일이라고 하는 또는 이런 새로운 지금까지 해상 전투에는 잘 활용하지 않던 그런 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해군에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피항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풍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대략 3……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파고가 2.5~3m였고 남서풍이 한 20노트로서 상당히 강한 풍량이 있고 있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평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평소는 통상 한 1.5m 정도 수준이고 풍속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풍량이 셧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반잠수정 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천안함과 속초함이 출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저희가 항상 거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당연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그 임무를, 거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함정들은 당연히 그러한 임무를, 그와 유사한 어떤 적의 도발이나 침투에 대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아니, 이번에 북한 반잠수정이 출동을 해서 출동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시에 늘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의원** 북한 잠수정에 대해서는 미국 인공위성 등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한국군과 미군의 모든 정찰 및 감시 수단을 활용해서 계속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의 침투가 예상, 항상 적의 침투가 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해상 침투에 관계되는 잠수함 및 잠수정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해서 24시간 내내 완벽한 감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함정의 움직임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의원**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하루에 통상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그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그거 외에도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잠깐만요. 하루 한두 차례입니까, 거의 대부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감시는 불가능한 것이고 대략 저희가 하루에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대략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항공사진을 지역 내에 전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제가 구글에서 찾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글에 나와 있는 이게 북한의 비파곳이라는 기지 사진인데 상당히, 아마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그런 군함들을 아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이렇게 민간에서 찍은 사진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군 사용 정찰위성에서 찍은 것은 상당히 더 자세할 것이라라는 겁니다. 북한 잠수정에 어뢰나 기뢰가 탑재되어 있는지도조차도 식별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어뢰는 통상 잠수정 같은 경우에,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그것을 싣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볼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반잠수정 같은 경우에 전에 북한이 자기들이 해외에다 파는 잠수정의 사진상에 보면 위에다가 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외곽에다 거치된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북한 사곶 기지에는 20여 척의 북한 잠수정이 배치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사곶에는 사실 잠수정이 없고 지금 있는 곳은 해주, 비파곳, 남포 등에 그러한 잠수함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사곶에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북한 잠수정 중 4척이 3월 26일경에 며칠간 사라진 적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여기서 너무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곳의 군항 중에서 한 곳에서 잠수함이 2척이 보이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4척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 저희가 즉 추적을 했는데, 저희가 항공사진만이 아니고 통신이라든가 다양한 수단에 있어서 또 그것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곳이 꽤 먼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이 지역하고 연관되는 움직임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두 척의 움직임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추적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놓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완벽한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또 기상이 그 지역 일부가 나뉘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적할 수는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저희 백령도 지역까지 오는 데는 좀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동성 의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언제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확인이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확인한 것은 24일 날부터 27일까지 그 어간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게 한 두 척이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사고 발생일이 27일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26일입니다.

○**김동성 의원** 26일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김동성 의원** 딱 그 시기랑 겹치네요, 어떻게?

○**국방부장관 김태영** 연관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보이지 않은 그 지역에서부터 저희 백령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잠수함이 매우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성을 볼 때 직접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을 해 봐야 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백령도나 대청도 일대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북한의 어떤 잠수정이 안 보이거나 할 때는 경계를 훨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확실한 어떤 징후는 전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징후를 못 찾아서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연관성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지금까지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잠수정이 위치가 불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근거가 뭐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의 운항 속도, 또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가 통상 영화에서 보는 그런 미국의 아주 최신형 잠수함처럼 오랜 잠항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멀리 잠항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꽤 먼 거리에서 보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열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잠수정들이 천안호 침몰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북한 잠수정이 과거에도 우리 한국 앞바다에 침입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잠수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김동성 의원** 예, 반잠수정.

○**국방부장관 김태영** 반잠수정 같은 경우는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남해안 쪽에, 다대포 지역과 그다음에 전라남도 쪽에, 그때 해남 쪽인가 그쪽에 침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 침투가 아니고 두 번 우리가 적발했다는 것이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그 두 번 이외에도 더 많았을 수도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간첩들이 북한 오고갈 때 반잠수정 또는 잠수정을 이용했던 예가 과거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

다. 일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과거 이선실 사건이라든지 김영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잠수정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한 것들이 과거에 많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반잠수정이 길이가 12m에 불과하고 표면에 레이더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발라져 있어 가지고 레이더로도 포착이 어렵다면서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레이더로 포착이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 대신 그 잠수함정이 작기 때문에 멀리까지 작전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리고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남쪽이 수심이 2, 30m로 낮고 또 조류도 빠르고 또 육지에 가까워서 초계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의 성능 발휘가 어려워서 반잠수정 탐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정도라고 판단…… 말씀이 대충 맞습니다.

○**김동성 의원** 천안함과 속초함이 침몰 직전까지도 계속 교신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천안함과 그 2개 함정 사이에는 교신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2개 함정이 인접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작전 지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개 함정 사이에는 교신이 없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것 제가 보고받은 거랑은 좀 다른데요? 교신했다고 나왔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뭐냐 하면 2함대에서 그 모든 함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2함대에서는 각 함정별로 각각 통제하는……

○**김동성 의원** 2함대와 교신 내용이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요지가 뭐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내용은 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의원** 왜 그것을 공개를 꺼리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 모든 패키지를 다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부대들하고 교신한 내용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

한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성 의원** 그런데 연평해전 때는 왜 공개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때도 저희가 교신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성 의원**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이 초기 브리핑을 할 때에 피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통상 이게 적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피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재는 이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함정이 침몰됐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아직까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습은 분명히 공격받았다는 것인데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말실수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우선 내부 폭발의 가능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사고 원인으로서는 내부 폭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이유는 뭐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왜냐하면 내부 폭발이 일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가령 포탄에 의한 폭발 같은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포병장교로 군 생활 하면서 많은 포탄하고 늘 지내 왔지만 그것은 발사된 이후에 폭발이 되는 것이지 발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폭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물론 또 유류고나 이런 게 사고 날 수는 있는데 그 부대의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성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신고 있던 폭뢰에 의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폭뢰는 하게 되면 그렇게 터지질 않습니다. 터지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폭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가능성도 낮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현재 해도상으로는 암초가 없습니다라는 워낙 그날 풍랑이 강했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풍랑에 의해서 배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동성 의원** 보도에 의하면 해도에 나오지 않는 암초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래서 그 암초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동성 의원** 사고 해역 수색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요, 그 암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김동성 의원** 아니, 일단 그 사고 해역을 수색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저희가 수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더 정밀 수색을 해야 합니다라는 현재 수색해 본 것으로는 그 암초는 그 위치가 아니고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암초인데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마치 저희 사고 난 지역에 있는 암초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성 의원** 소위 말하는 홍합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게 사고 장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마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김동성 의원** 천안함이 운행할 때 물속에 잠기는 부위가 몇 m까지 잠기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해군장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는 한 4~5m는 충분히 잠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제가 조사한 것은 함수가 2.86m 잠기고 함미가 3.2m 잠깁니다.

그러면 암초에 충돌하려면 바다 속의 암초가 수면으로부터 3m까지 올라와 있는 암초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 암초가 탐지가 과연 안 될 수가 있는가……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그와 같은 암초는 다 탐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합여 탐지 그것은 위치가 우선 전혀 맞지가 않고 또 바다의 풍랑이 셀 때의 모습은, 많이 바다에 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물이 쪽 빠지다시피했다가 나중에 또 한꺼번에 몰아쳐 오고 그래서 그 파고가 바다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쉽게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성 의원 암초에 걸린 경우도 이렇게 본 것처럼 배가 두 동강 날 수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도 아주 극히 제한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저희가 사례에서 몇 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성 의원 우리 군함이 과거 60년 동안 이렇게 암초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암초에 걸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암초로 인해서 배가 반 동강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암초에 걸리면 어떻게 파손됐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파손은 밑에 파공이 일부 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또는 옆에 긁히거나…… 지난번에 우리 태안에서 유조선이 파괴되듯이 그러한 상태의 어떤 파공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런데 왜 해경이 초기에 천안함이 좌초되었다고 표현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교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좌초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아마 그 부대에서는 그 당시에 상황이 바쁘다 보니까 급히 하여간 일단 배가 좌초됐으니 빨리 구출을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인천해경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해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좌초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초기 단계의 워낙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데 하여간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피로파괴설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김동성 의원 피로파괴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함정이 88년도에 만들어진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저희 군함 중에서 낡은 급은 아니고 대략 한 중간급 정도 이상 되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낡은 함정으로 피로파괴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가 08년도에 이 함정에 대해서 창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검사했을 때, 창정비는 거의 배를 새로 만들다시피 검토하는 겁니다. 그것 검토했을 때 이 함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이런 초계함들이 몇 척이 있지요, 지금?

○국방부장관 김태영 22척인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26척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26척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중에 배의 나이 선령으로 따지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열아홉 번째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동성 의원 열여덟 번째로 상당히 젊은 편입니다.

마지막 안전검사한 것은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안전검사는 최근에 했어요.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 2월달에 안전검사를 했어요.

우리 군함 중에 60년 동안 이렇게 피로파괴 현상을 보였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없습니다.

○김동성 의원 자, 지진파 얘기가 지금 나와서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지진이 아니고 폭발에 의한 지진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것은 지진을 측정하는

거기에서 측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진파는 아니고 어떤 폭발음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폭발에 의한 것이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1200t급 규모의 함정이 암초에 부딪혔을 때에 이 정도, 리히터 1.5 정도의 지진파 발생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부딪힘을 해 갖고서는 그런 음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그 배가 부서지면서 나오는, 아마 그때 나왔던 폭발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폭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어떤 분은 전속력으로 전진하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시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나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계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속력으로 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열어 놓고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자, 그럼 지진파 분석에 따르면 분명히 폭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폭발이나 폭뢰에 의한 것이 아니면 지금 이제 기뢰나 어뢰의 가능성이 남는 건데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마는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아마 조금은 더 실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다 열어 놓고 봐야만 합니다.

○**김동성 의원** 자,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이면 TNT 180kg 정도의 폭발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뢰와 기뢰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을 넘는 것은 대부분 많이 넘는 것이 많습니다.

○**김동성 의원** 제가 조사한 것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직주어뢰가 TNT 150에서 300kg, 음향반응어뢰가 TNT 100에서 190kg, 접촉식 기뢰가 TNT 100에서 250kg, 감응식이 TNT 300에서 700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본 건의 폭발력이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어뢰 및 접촉

식 기뢰의 폭발력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일치된다기보다는 그러한 폭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김동성 의원** 그러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로서 우리가 단언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동성 의원** TOD 동영상을 보니까 천안함의 절단면이 C자형으로 곡선으로 절단되어 있더라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어뢰 공격을 받은 경우에도 이렇게 절단될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국방부장관 김태영** 어뢰의 공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타깃에 바로 맞추는 방법이 있고 또 어뢰가 함정의 밑에서 폭발함으로써 소위 버블을 일으켜 가지고 배를 갖다가 허리를 분지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직격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뢰에 의해서 파괴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파괴된 것인지는 앞으로 그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수중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버블 제트로 공격하는 방식, 그런 방식의 어뢰를 북한이 가지고 있나요?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계속 많은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추정만 한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아직까지 그것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김동성 의원** 어뢰에 의한 것일 경우에 이 어뢰는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천안함 소나(SONAR), 즉 음파탐지기에 잡혔지 않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물론 정상적으로는 아마 잡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날같이 또 풍량이 세서 다양한 소리가, 잡음이 많은 상태에서는 경우

에 따라서는 그걸 놓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 소나병은 그런 어뢰가 접근하는 것은 자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소나병의 진술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있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하면 탐지 및 회피가 불가능한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그렇게 쉽게, 짧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회피가 어려울 것은 분명합니다.

○**김동성 의원**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쏘는 경우는 알고도 피하기 어렵다는 거리가 있다고 하던데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배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동성 의원** 천안함에서 차 모 하사가 여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9시 16분경에 ‘비상 걸렸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비상 걸렸다’라고 진술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지금 그 병사가 지금 현재 실종자 쪽에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존하고 있는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그것을 진술에 저희가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고 나 봐야만 저희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성 의원** 어떤 비상이 걸리면 비상 사이렌 같은 게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현재 그거에 대한 진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8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인양을 하고 나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실제 침몰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9시 22분인데 그러면 16분에서 22분까지 6분 차이가 나거든요. 그 6분의 시간 동안에 과연 어

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 16분에서 22분까지의 6분 동안에 어떠한 사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대해서 대부분 ‘야간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진술이 많은데 제가 볼 때도 좀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나중에 이거는 저희가 조사 후에 명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일부 병사들은 ‘전쟁이 터진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하는 병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무슨 소리……

○**김동성 의원** ‘전쟁이 터진 줄 알았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은 하나하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격실에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병사들이나 간부들의 발언을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받는 것이 ‘혹시 이 6분의 시간 동안에 어뢰가 탐지되어서 비상 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데가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다 놓고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하고, 또 대상이 되는 58명의 진술이 좀 일치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진술 면에서 확실한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한 5~6km 거리에서 어뢰를 쏘면 도달하는데 한 5~6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시간과 공교롭게 일치가 되거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사고 3분 뒤에 찍은 TOD 영상을 보면 사람은 열 감지가 되어 가지고 검게 표시가 되더군요. 그런데 함선의 절단면을 보니까 열 감지가 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분명히 어떤 어뢰에 맞았

다든가 하면 그 맞은 지역에 대해서, 또 아니면 밑에서 버블 제트에 의해서 되었을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온도가 높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날은 상당히 풍량이 많이 치고 있었고, 또 물의 풍랑 때문에 파도가 계속 배에 물을 끼얹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은 어떤 열이 거기에 전파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또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또 식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더 해봐야만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성 의원 아까 말씀하신 수중 폭발의 경우에는 직접 함정을 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열 감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죽 토의해 본 것에 의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이라도 열의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다 가운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바닷물이 있으니까 그런 열이 또 금방 식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상세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동영상 보면 배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저희가 나중에 배를 끌어올려 봐야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성 의원 어떤 분들은 혹시 이것이 왼쪽에 어뢰 타격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무게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뢰가 가령 왼쪽에서 쏘서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설을 가지고 이것을 논란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김동성 의원 기뢰와 관련해 가지고, 기뢰라고 하면 아군 측 기뢰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기뢰는 과거 북한군이 6·25 전쟁 당시에 한 3000여발을 사용했던 바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75년 경에 백령도 지역에 적의 상륙을 막기 위해서 폭뢰를 폭뢰 기능을 제거하고 그것을 전기식 뇌관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제거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 있다 보니까 제거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폭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확인해 받았는데 우선 북한이 과거 1950년대에 사용했던 것들은 지금 있다 하더라도 폭발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 물론 어느 누구도 100%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는데 그렇고, 또 저희가 75년도 것은 전부 전기식 뇌관이기 때문에 전기식 뇌관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는 그것은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동성 의원 일부 언론은 그 부근이 미군이 있던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뢰를 설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글썽요, 그것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했고 또……

○김동성 의원 언제 제거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미군의 그것은 아직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미군에서 그런 설치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그 수거도 미군이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기뢰 수거, 설치를 아예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까 북한 것은 북한에서 수거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저희 것은 1980년대 초에 전반적으로 다 수거를 하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설치한 부대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미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니까 미군의 그 기뢰는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까? 미군이 설치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치되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군 레이더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뢰는…… 그래서 그것은 더 확인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동성 의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때 설치가 됐다가 수거가 안 된 기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아직 설치한 것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군이 기뢰를 설치했는가 자체가, 지금 그런 설이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하고 설치했다면 또 제거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일부에서는 독수리 훈련이나 키리졸브 훈련 도중에 설치한 기뢰가 미수거되어서 폭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전혀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미 간에 그러한 연습을 합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데 그것은 주로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은 연습용 기뢰이기 때문에 폭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성 의원** 최근 북한이 설치한 기뢰가 떠내려 왔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데 떠내려 온다는 것은 최근에 북한이 설치를 했다면 떠내려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최근에 어떤 기뢰를 설치했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쳤을 때 그것이 초계함 같은 경우에 탐색이 용이한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초계함으로는 대단히 제한되고 기뢰탐색함에 의해서 그것은 식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김동성 의원** 북한의 반잠수정이 또는 잠수정이 초계함 공격을 위해 가지고 몰래 설치한 기뢰면 탐지가 곤란해서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시는 북한의 반잠수정은 배가 작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기뢰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잠수정은 안 됩니다.

○**김동성 의원** 잠수정의 경우는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그것보다 큰 I급 잠수함이라든가 대형잠수함은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잠수정은 워낙 배가 작아서 그것으로는 기뢰 설치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잠수정 가지고는 할 수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다른 잠수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감응기뢰라는 게 있는데 감응기뢰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똑똑한 기뢰터만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김동성 의원** 배가 몇 번 지나갔을 때 터지게 한다든지……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또는 일정 시각에 터지게 한다든지 다 가능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함정과 일반 민간 어선의 구별이 가능한가요, 감응형기뢰가?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러한 기능을 가진 감응기뢰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오늘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한 방 맞았을 가능성이 60~70%’라고 군 고위 관계자가 진술을 했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는 그것을 속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열어놓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기뢰에 의한 거라면 물기둥이 생겼을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나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글썄요, 야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 위에도 갑판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봤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초소가 어디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거기에 있습니다. 백령도에

가까운 데 초소가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몇 미터 떨어져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미터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동성 의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880m 정도인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정도입니다.

○**김동성 의원** 거기서는 육안으로도 보이지요? 혹시 그런 것 비슷한 것 봤다는 병사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1개 초소에서 물기둥인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성 의원** 왜 안 되지요? 그 진술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왜냐하면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자기는 ‘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배가…… 그러니까 TOD를 찍는 병사가 배가 이상한 모습이 되니까 찍는다고 눌렀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게 안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의 말에 의하면 그 앞에서 물기둥 같은 것을 본 것 같다 하는데 그 자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물기둥을 본 게 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확실치가 않고 ‘본 것 같다’라고 하니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천안함 침몰 주위 바다를 보면 기름이 떠 있지 않을까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진술에는 기름 냄새가 났다고 하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기름 냄새가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그 함정에서 구출을 받은 58명 중에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장병이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기름탱크가 파괴됐다는 얘기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뭐 일부 파괴됐거나 아니면 기름이 누출되어 가지고, 그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태니까 그 주변에 많은 기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더 여러 사람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기름탱크까지 터지고 했다면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어뢰나 기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뢰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직접 직격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게 분명히 기름이 유출됐다면 불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제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불이 나지 않고 그리고 배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유류고가 파괴돼서 기름이 누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는 좀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고맙습니다.

○**김동성 의원** 고 한주호 준위는 실종자들을 구하기 위해 살인적 조건의 심해에서 목숨을 건 구조활동을 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무정한 서해바다의 녀트로 산화했습니다. 이러한 한 준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우리는 뜨거운 눈물로서 화답해야 합니다. 그의 숭고한 이념과 행동을 가슴에 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 세력들은 온갖 억측과 부정을 가지고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갈등과 반목의 독버섯을 피워 우리 사회를 분열과 증오로 이끌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들은 이번 참사를 또 하나의 정치적 선전 선동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격한 파랑에도 불구하고 미 해병조차 포기한 저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서 오직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수색작업을 벌이는 우리 구조대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실종된 우리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구조작업에 나서는 것, 그리고 비통 어린 자기반성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당국의 잘잘못은 그 후에 가려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밤낮 없이 이번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정말 국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위와 발전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통합인지 아니면 분열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동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석호 의원의 소개로 경북 영덕군의 지역구민 35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고 한주호 준위의 고결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며칠간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실종자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이지났습니다. 단 한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군당국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실종자 가족의 애통함, 그리고 분노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사고 26일이지요? 지금 일주일이지났습니다.

지금 천안함 선미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실종자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실종자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그러한 가정 하에 하여간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어떻게든 빨리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거기는 지금 온도가 4도 이하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어떻게든 제일 어려운……

온도는 어떻게 높일 수가 없지만 산소 공급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없을까 해서 어떤 틈이나 산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군 대응을 보면 처음부터 구조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부는 구조는 아예 포기한 채 정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마하기 위해서 언론 통제도, 생존자를 격리하고요, 실종자 가족 접촉하는 것을 통제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와 군당국이 일주일 동안 한 것이 어떤 구조 활동인지, 구조 활동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 고생하는 구조잠수부들의 희생정신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국의 무책임 때문에 구조잠수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미쳤습니다. 한주호 준위가 사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희생과 구조작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진상을 좀 밝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구조의지가 전혀 없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정말 너무 섭섭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 보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주호 준위도 그러한 차원에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빨리 빨리 구조전력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구조전력은 신속하게 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거기에 구조함이라든가 구조나 이런 것에 활용되는 배들이 대부분 전투함처럼 빠르지가 않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런 함정들을 현 지역에 보내는데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투입되는 우리 장병들이—잘 훈련된 장병들이긴 합니다마는—그 인원수가 한 200명 이하로 항상 저희 한국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적었고,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셔서 밖에서 민간인 중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본인들이 욕심은 굉장히 내고서 오셨습시다마는 실제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지원은 되지가 못했고, 오히려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은 저희의 구조 노력을 거기에 와 계신 실종자 가족들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훨씬 좋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셨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더해서 최근에 훈련차 이쪽에 들어와 있던 그 미군들이 저희 지역에 올라와서 지금 구조함 한 척과 구조능력을 가진 인원 18명인가 같이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 한국군 육군이 가지고 있는 구조능력, 또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전 인원이 거기에 투입돼서 지금 계속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까지 많은 장비와 인원이 투입됐고 신속하게 투입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조현장을 가 보니까 이것 충격적입니다.

실제 수중에서 잠수해서 구조활동 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여러 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구조……

○**이종걸 의원** 대답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김태영** 통상 2인 1개조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가 계속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의 팀이, 심해구조팀이 위에서 대기를 하고 그중에

서 조를 짜 가지고 그 인원이 들어가서 하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종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조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수중에 들어가서 구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대한민국 해군에서 지금 구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단 두 사람이 구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물론 전 인원이 다 뭉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이종걸 의원** 안전 문제라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거기 지금 잠수보트, 구명보트가 여러 대가 다니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12개조 24명 또는 24개조 48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런데 들어가는 잠수부, 구조잠수부는 몇 명입니까? 딱 2명이 들어가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머지 46명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위에서, 물 위에서?

○**국방부장관 김태영** 기다리고 교대해서 나오고 그런……

○**이종걸 의원** 물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46명이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단 2명만 들어가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한 7분, 한 팀이 들어가서 한 7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20분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0분이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고작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한 7, 8분 됩니다. 예, 맥시멈 7, 8분……

○**이종걸 의원** 5분 내지 6분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러면 20분에 2명이 5분 내지 6분 하는 게 구조작업의 전부예요. 지금 거기 떠있는 구조함들, 많은 구명보트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저 아낌없이 전 인원을 물에 처박아서 다 넣어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전 인원을 넣는다고요? 지금 구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구조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그리고 20분에 딱 5분씩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정조시간 4번, 4시간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러나 그것도 다 할 수 없고 두 세 번인데 1시간씩 세 번, 그 1시간도 20분,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분 합니까? 세 번, 60분이면 세 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그게 대한민국 해군이 구조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거예요, 구조예요. 단 2명이 20분에 5분 내지 6분 구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전부 맞습니까, 그것?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갔고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조 작전에서의 어려움이 거기 있는 심해구조의, 심해는 아닙니다만 한 45m 정도의 구조를 하는 데 한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구조작업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국민들한테 언론에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48명이면 24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교대로 작전 진행하듯이 하고 있는 줄 아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2명 들어가 가지고 4분, 5분…… 그분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희생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2명이 뭘 어떻

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준호 준위 같은 분도 나오는 거예요, 혼자 무리하다 보니까. 전 거기 떠있는 구조함들, 구조함들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이 뭘 어떻게 구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옵는 이종걸 의원님,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종걸 의원님 말씀에 쉽게 호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그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종걸 의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6명을 물에다 파묻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가슴이 타 갑니다. 그런데 2명씩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46명을 한꺼번에 인양을 하고 구조를 합니까? 지금 그것은 어림에 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 답답하시겠지요.

그러나 저도,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정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빨리빨리 모든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종걸 의원** 잠수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챔버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감압챔퍼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대한민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챔버가 몇 대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동되고 있는 감압챔버가 몇 대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신문에서……

○**이종걸 의원** 대답하세요. 몇 대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압챔버라는 것은 저희 해군이 총 8척을 가지고 있고 현재 나가있는 것에서만 해도 각 구조함마다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하나에 6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시에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챔버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챔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에는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장관님! 분명히 29일, 30일까지는 챔버가 한 대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챔버함이 하나 오면서 2대가 됐어요. 그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그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왜냐하면 광양함에 하나의 챔버가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1대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에는 6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들어갔던 소화함 2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각각 1명씩 들어갈 수 있는 챔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챔버가 부족해서 작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걸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3대나 4대나 있는데 왜 챔버를 하나밖에 운영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왜냐하면 구조함에는 원래 챔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함이 하나 추가로 와서, 지금 평택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택함 구조함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살보함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각각 6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18명이 가능하고 또 그 외에 양양함, 용진함, 소화함 2정이 있는데 그 함정에도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가는 챔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챔버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2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챔버가 있는데 왜 그러면 잠수부를 2명씩만 넣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여러분이 그 안의 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40m 정도의 깊이엔 안전통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빠른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거의 깜깜 절벽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라인을 메고 라인을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라인을 따라서 운영하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주호 준위 같은 그런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물론 한주호 준위도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가, 어떻게 보면 1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나 실종자 가족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 군에서 일부로 병력을 적게 넣어서 시간을 끌어서, 저희가 시간 끌어서 뭘 득을 보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철선으로 인계되어 있는 잠수부 인도선이 딱 하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래서 2명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그……

○**이종걸 의원** 그리고 챔버가 하나밖에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명만 들어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까지 현상이 그런 것인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장관님, 잘못하면 위증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까지 장관께서 바깥에서 말씀하신 것은 챔버가 1대 운영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30일 이후부터 미군 챔버가 오면서 2개가 운영될 수 있지만 그러나 30일, 31일 풍랑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의원님, 우리가 챔버 숫자를 따질 게 아니라 챔버의 능력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챔버 가지고 기자들한테도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 이거 챔버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작전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챔버 숫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논란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 많은 챔버가 있는데 왜 구조대원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뭐냐 하면……

○**이종걸 의원** 왜 바다에서 대기하게 만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의 안전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챔버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까지 챔버를 여러 대 운영했

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1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그러니까 1대를 운영하던 여러 대를 운영하던 1대만 운영해도 지금 작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구조잠수부가 단 2명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24명 또는 12명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작전하듯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2명, 오로지 온리 2명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주호 준위도 무리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자면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도 정말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물에 들어가 잠겨 있습니다. 저도 살리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장관님 표정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챔버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의 구조 잠수부가 한꺼번에 가서 작전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챔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들었습니다. 들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챔버……

○**이종걸 의원** 왜 민간에 있는 챔버는 한 번도 수배를 하지 않았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걸 좀 정확하게 아시지요. 저희 챔버 갖고 부족하지 않은데 왜 민간 챔버를 저희가 수배를 합니까?

○**이종걸 의원**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하나가 운영됐던 것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시고 부족한 챔버를 부족하지 않다고 거짓말하시고, 지금 여러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다가」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장관님, 만약에 생존자를…… 거기에 생존자가 있다고 지금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어요. 생존자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구조, 구출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저희는 빨리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어떻게든지 구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색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거기에 사람들이 발견되면 아직 살아있을 경우에—살아있기를 바랍니다—당연히—그 인원을 거기에 심해 잠수조가 가지고 있는……

○**이종걸 의원** 지금 함미 부분에 40m나 되는 곳에 생존자들이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거기서 발견하면 40m를 어떻게 데리고 나오니까? 그런 대책이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대책을 지금 다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뭐 제가 잠수조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서 구조해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종걸 의원** 어떤 준비를 합니까?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민들 앞에!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이종걸 의원**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께 물어보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요.

우선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인원을 찾아내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인원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그 인원을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거기는 기압이 한 5기압 내지 6기압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천천히 그 인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지금 구조 잠수부가 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겁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을 띄워서 40m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 그게 마련되어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되어 있지요.

○**이종걸 의원**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이 저희가 가서 무슨 작전을 하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수십 년 동안 훈련된 한주호 준위도 거기서 잠수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일주일 이상 탈수, 지쳐있는 생존자가 40m를 어떻게 올라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 인원에 의해서 모시고 올라오게 되겠지요, 당연히 거기서.

○**이종걸 의원** 실종자들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전혀 군에서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믿음까지 있습니다. 산 사람을 구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는 어떻게든 산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군이 산 사람을 구출할 생각이 없이 그야말로 시신을 끌고 올라올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매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선미에 갇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추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6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 걱정하는 것은 배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유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이종걸 의원** 그게 열네 분쯤 된다고 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 열네 분에 대한 수색,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쌍끌이로 해서 수색

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여간 더 급한 것이 생존자들을 구출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한쪽에서는 쌍끌이로써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생존자 구출하는데 2명씩 20분에 5분씩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그쪽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오히려 그분들을 더 위험하게 몰고 있는 게 지금 장관님, 군 당국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의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걸 의원** 실종자 가족들이 27일 날 그 현장에 갔어요. 선미하고 선수를 잊어버렸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종걸 의원** 27일 날 이미 가 보니까 선미와 선수를 잊어버렸어요.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26일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선미, 선수 언제 찾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당일 날 이틀 뒤에부터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찾지 못한 건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 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사고 나자마자 부표도 하고, 지금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27일, 28일도 구조하는 그런 태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이 가 봤어요. 27일 날 가 봤더니 선수, 선미도 없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잊어버린 게 아니고 26일 날 선미가 잘라져 나가고 27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그게 미끄러져서 슬라이딩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일, 27일 날 그 당시에는 사실 2개 어느 것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종걸 의원** 언제 찾았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후에 찾았지요, 28일 이후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까요?

○**이종걸 의원** 29일 날 찾았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지요.

○**이종걸 의원** 29일 날 9시쯤 찾았어요. 그 사이에 27일, 28일, 29일 그 찾기 전에 지금 구조작

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보고한 내용들은 됩니까?

지금 없어진 선수와 선미 거기 위에다가 어떻게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던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면 선수와 선미를 찾는 것은 구조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시지를 않습니까?

○**이종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체를 찾는 것도 구조 활동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링스헬기나 디핑소나 같은 건 왜 동원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용하기만 하면……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말씀할게요. 디핑소나는,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디핑소나는 뭐냐 하면 잠수함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잠수함이 움직일 때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디핑소나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걸 의원** 소나 장비를……

장관님, 그거는 또 유식하게 잘 아시네요.

(웃음소리)

이것도 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어 본 얘기입니다. 소나 장비를 활용하면 3일 동안 잊어버린 선수, 선미를 왜 이렇게 헤맸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도대체 이 군 당국에서 잊어버려 놓고 안 찾는 것 아니냐, 고의로 안 찾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의심을 가족들은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참 기가 찰 노릇은 없는 선수, 선미 근처의 바다 속에서 잠수부를 입수시켰다가 내보냈다가 하면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선미가 어디에 있는데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족들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종걸 의원** 대답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평택에 우리 실종자 가족들이 계신 데에서 여러 시간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 거기에서 같이 많은 대화를 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위 속타는, 애타는 마음 또 어떤 저에 대한 불만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저도 말씀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많은 노

력하고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좀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국방부장관 김태영** 실제로 저희는, 물론 처음에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우선 급히 전개하면서 거기에 그 당시에 소해함이 가야만, 소해함이 그걸 찾아내는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센서라 하더라도 멀리 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일단 급한 대로 우선 잠수부를 전부 출동을 시켰기 때문에 잠수부를 일단 넣어서 찾는 노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여러 추를 내려 가지고 추를 당기면서 거기에서 걸리는 것이 있는가를 또 찾는 노력 등 이런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찾는 데 결정적인 것은 그 기뢰탐색함이 와서, 기뢰탐색함이 하게 되면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어부가 대략 어느 위치에서 뭘 발견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략적인 큰 모습의 뭐가, 바위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소나를 가지고 온배가 바로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확인했고 그다음부터는 집중적인 탐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그런 찾는 것도 하나의 탐색, 구조과정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구조가 계속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종걸 의원** 장관님, 3일 후에 탐색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부가……

○**이종걸 의원** 어군이지요, 어군? 해군이 아니라 어군이 찾았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어군탐지기로 개략 위치가 이렇게 큰 것이 뭐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것은 그때 막 저희 기뢰탐색함이 와서 기뢰탐색함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뢰탐색함은 대략 한 50cm 정도 규모의 어떤 물체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어군탐지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개략적인 것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기뢰탐지함 용진함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게 진해에 있었기 때문

에 진해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그게 대략 한 10노트에서 12노트 정도의 속도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이종걸 의원** 늦은 속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10시간이나 늦게 출발시켰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거기에서 준비해서 출발하는데 조금 늦고 빠른 것이……

○**이종걸 의원** 해군은 10시간 정도는 쉬는 시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사고발생이 35분이나 40분이나, 지금 1분, 2분이 춘각을 다투는 때입니다. 10시간 뒤에 출발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뢰탐지함 용진함을 10시간 뒤에 출발시킨 이유가 뭐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시해서 아무래도 배가 나오고 하는데 조금 시간에, 인원소집 이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더 빨랐으면……

○**이종걸 의원** 시간이 좀 걸린 게 10시간이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해군에서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원소집이나 이런 데 시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배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이 10시간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기뢰탐지함 용진함이 오고 작업을 시작한 그 시점에 어군이 찾았어요, 어군이. 어부가 찾았습니다, 어부가.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군탐지기로 개략적인 위치를 거기에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배로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작전을 한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좋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재 선미에 산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산소 공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소를 넣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를…… 한 몇 번을 넣었습니다만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몇 번을 넣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넣었습니다.

○**이종걸 의원** 어떻게 넣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링(lung)에다 넣어 가지고 간 것을 거기에 풀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다 그러는데 아직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종걸 의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입니까? 지금 보도가 세 번에 걸쳐서 넣었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런데 틈새로 호스를 넣었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5기압 정도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산소통 하나 넣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4시간 정도 쓸 수 산소입니다. 그것 한번 넣었어요. 여러 번 넣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종걸 의원** 노력을 했는데 안 됐지요? 노력했다고 칩시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만큼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산소가 공급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에서.

○**이종걸 의원** 46명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살아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살아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산소통 넣지도 않고 넣었다고 거짓말 언론보도를 하게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산소통을 넣었다는 것은……

○**이종걸 의원** 왜 헛된 희망을 줘요, 실종자가 족들에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산소통을 넣었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고 산소통을 넣는 작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총리께 물어볼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총리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이 사고가 나자 실종자가족은 군 당국으로부터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느냐, 특진시켜 주겠다’ 희유·협박을 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한두 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 가족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종걸 의원 실종자가족을 증인으로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전방위적인 실종자에 대한 희유·협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고립화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장관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함대 사령부 교신 기록, 이동 기록, 그리고 파견된 고속정과 초계함에 대한 원본 동영상, 구조에 투입된 일별 장비 일체 목록과 인원 규모, 백령도 레이더기지의 사고 당일 레이더 영상자료 이것을 꼭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안보 위기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정부야말로 가장 심각한 안보파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발표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자식·형제·자매들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최대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이종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상은 의원 소개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역구민 서른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강용석 의원 소개로 서울대 법과대학생 마흔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박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옹진군·동구·중구 출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사고 해역인 백령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접하는 심정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국력의 눈부신 성장만큼 가장 성장·발전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느 민족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국난을 경험했고 또 그리고 그 국난을 눈부시게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수고가 많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상은 의원 최근의 북한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만성 적자가 좀…… 만성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은 의원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또 임대료 인상 요구하고 있고, 금강산관광 재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래 우리 정부는 지금 관광객 안전보장, 또 개성공단의 경우에 3통 이런 원칙을 지켜서 저희들이 계속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금강산 문제는 저희 정부가 3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

고 또 그것을 남북의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측이 회담에 응해 오면 또 그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3통에 관한 군사실무회담이 지난번에 열렸고 후속 회담에 대해서는 개최한다는 합의를 대강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회담이 있게 되면 문제를 한두 개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최근 계속 외신에 보면 북한의 긴급사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러한 얘기했던 경협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북한이 계속 우리 NLL 무력화와 연결해서 도발하면서 남북 경협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러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는 그런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북한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되는데 국회가 열려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의혹이 이 자리에서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감사합니다.

○박상은 의원 어제 4시 국방부 합참 발표가 상당히 많은 그동안의 의혹을 해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의혹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또 국민들의 그만큼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의혹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작일 16시에 정리를 해서 ‘실제로 이런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셔서 그것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다시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우리가 사태를 맞은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사후대책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군사작전 문제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또 하나는 실종자 그다음에 사고 수습 이런 것이 되겠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물론 정부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해서 생환시키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두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급변하는 그런 사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작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의 안보태세, 위기관리 차원에서 장관께서는 그날 어떠한 군사 조치를 군사적으로 취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때는 저희가 이 사안이 처음에…… 지금은 있을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북한의 기습 도발로 저희가 최초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그런 군사적인 조치는 전부 조치를 한 상태에서, 그것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안 자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지금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박상은 의원 그날 즉각 해상경계 A급을 경보 발령 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해병6여단이나 또 대청도 고속기지, 그다음에 공군과 합동작전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부대는 해군과 해병대 그다음에 공군 이런 부대들이 다 있습니다. 또한 육군에서 증원되어 나가 있는 일부 부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대는 해군 2함대 사령관의 통제하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쪽 지역 전체가 2함대 사령관의 통제하에, 비록 사건은 바다에서 이루어졌지만 백령도나 거기에 있는 서북 도서에 대한 거기에 있는 모든 부대가 다 비상이 발령되었고, 그래서 백령도에는 전 기계화부대라든가까지 전부 출동 준비를 하고 사격 준비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는 완벽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초함의 기동에 관계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속초함만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해상에서의……

○박상은 의원 아까 새떼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다음에 그것 외에 지상에서도 모든 대피 태세를 최고도로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우리가 어떠한 징후를 포착한 것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당시에는 어떤 명확한 징후보다는 어떤 북한이 이렇게, 저희가 도발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발이라면 우선 첫째 도발한 적의 잠수정이든 어떤 적의 해군세력이 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속초함을 빠른 속도로 NLL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이쪽 고속정과 해경정에 의해서 구난작전을 수행하고 나머지 그 외 공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경계 태세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속초함을 갖다가 NLL 남단까지 붙인 것은 결국……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도에도 지금 나옵니다. 해도가 나오니까는 결국은 뭐냐 하면 예상되는 적의 도발하고 도주하는 도주로를, 퇴각, 퇴로를 막는 아주 선제적인 좋은 작전을 세운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가 이것은 필히, 적이 어떤 도발 했다면 도발한 적은 저희가 격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것과 같은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박상은 의원 본 의원도 수심이 좋은 데 구축함을 타고 그 지역을 한 2년간 지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날 많은 국민들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느냐 하면 퇴로를 그때 새떼로 오인했다는 거기에, 피 미상의 함정에다가 사격을 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새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그때는 저희 해군

의 전 장병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레이더에, 야간이 되었든…… 우리가 생각을…… 레이더에 7~8km 전방에 그러한 괴함이 굉장히 빠른 40노트 정도 속도로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2함대 사령관에 통지하여 바로 사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더니 저희를 공격하고서 탈주하는 그러한 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바로 사격을 했는데 NLL을 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죽 봤을 때 항로가 계속 북쪽으로 가면서 이상하게 일반 배같이 움직이지 않고 가다가 뒤로 거꾸로 돌기도 하고 이러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상해서 죽 추적을 했는데 저희 레이더를 담당하는 장병들의 판단으로는 결국 이게 정상적인 배가 아니고 이것은 새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저희들 때는 물론 전투함이 더 능력이 좋지 않았습니까마는 새떼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두 발, 세 발만 쏘면 그 포격 소리에 놀라 가지고 새들이 흩어지거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저쪽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게 7~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쏘는 포구 앞에서는 물론 포 소리가 들립니다마는 새가 날아가고 있는 7~8km 떨어져 있는, 한 10km 떨어져 있는 데에 거기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그 새들은 정확하게 느낌이 안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은 의원 76mm 포니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km 정도 이상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몇 킬로가 지금 떨어진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한 7~8km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새가 들을 수 없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웨이크(wake)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박상은 의원 웨이크라는 게 뭐냐 하면 배가 고속으로 달리면 거기에 뒤에 배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배가 보이지 않고 사실 물결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웨이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때는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속초함에서 급히 보이니까 ‘이게 아마 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바로 2함대 사령관이 즉각 타격하라고 해서 바로 우선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 추적을 하니까 추적하는 것이 결국은 움직이는 것이 일반 배하고 다르게 특이하고 나중에는 지상, 육상까지 올라가면서까지도 계속 나오는 그 궤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링스나 대잠 P3 그날 출동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나중에 링스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했는데 그것은 덕적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동성 의원이 얘기하는 북한 4척의 기동잠수정과는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그 잠수정은……

○**박상은 의원** 그러니까 그 잠수정이 다른 관계로 연관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 속초함이 쏜 것은 그것은 아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저희는 그것은 새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천안함이 백령도의 1.8마일까지 접근했느냐, 이것이 무슨 특수임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박상은 의원** 제가 보면 그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근무할 때 보면 구축함이 백령도에서 10마일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면 1.8마일 굉장히 근접해 들어갔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것이 어떤 특수 임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하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특수 임무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북한 측은, 저희

가 지금까지 세 번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 해전을 할 때마다 각각 다른 형태의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 번의 해전을 통해서 해상에서 함대함 전투에서는 북한이 저는 어떤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도발해 올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결과 이제는 지상에 있는 무기로 저희를 공격을 해 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적이 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가능하면 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저희 기동을 섬 뒤로 함으로써 그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히 풍랑이 썰기 때문에 그 풍랑을 좀 피하는 것과 같이 결부해서 그런 작전이 좀 근접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과거에 연평 1·2차, 그다음에 대청해전을 하면서 해저는 도저히 장비나 함정의 어떤 노후 때문에 남한과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해안포로다가 쏠 것이다, 도발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해상으로의 도발도 언제나 또 있겠지만 또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써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도발을 했을 때는 저희가, 물론 저희도 대책이 있습니다라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지상에 있는 섬과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 뒤쪽으로 기동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저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전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함장이 당일 보면 다음날 작전을 연구하느라 함장실에 있었다, 또 어떤 수병은 샤워하다가 맨몸으로 쫓아 나왔다, 또 어떤 수병은 핸드폰으로다가 애인하고 통화를 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비상, 만약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비상을 걸고 들어가서 다 자기 위치에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박상은 의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건이 안 났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평상시 정상적인 경비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임무나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작전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상적인 초계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까지 살살이 훑으면서, 초계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을 담당해서 즉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해안포에 우리 NLL상에 있는 모든 함정들은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장사포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사정거리가?

○**국방부장관 김태영** 방사포의 구경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먼 것은 한 40km까지 사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사포에 대한 위협 또 적이 가지고 있는 지대함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함미사일에 대한 위협,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피해야 하니까 그런 작전과 저희의 일반적인 작전을 같이 묶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박상은 의원** 그런 개념에서 과거 종래의 그런 작전 개념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PCC가 우리 육지까지 가까이 들어갔다, 그것이 정상적인 경비 활동이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경비 활동은 아닌데 좀더 섬에 가까이까지 가는, 또 그쪽이 대략 수심이 20~25m 정도 되기 때문에 함정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박상은 의원** 본 의원도 거기 있었고, 또 이번에 제가 사고 나고서 현장에 들어가서 이틀 다녀왔습니다. 제가 봤습시다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세히 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북한의 해안포에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 정보에 보면 북한이 항상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기동을 갖다가, 피하는 기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육지 가까이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지금 우리 군인들이 항상 안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박상은 의원**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백령도라든가 인근에 전진기지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전진기지가 구축되면 저희로서는 저희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래서 그러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구조작업 과정에서 지금 또 의혹들이 많이 있어서 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인원을 갖다가 구조하는 해경과의 합동작전은 상대적으로 잘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왜 해군은 뒤에 서 있고 해경이 앞에서 다 했느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날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출동한 것은 저희 PK함,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동한 것은 PK함들이 맨 처음에 출동을 했고……

○**박상은 의원** PK 2척이 쫓아갔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맨 처음에 2척 그다음에 바로 뒤에 2척 해서 4척이 거기에 나왔고 그로부터 한 30~40분 뒤에 인천해경으로 연락된 것이……

○**박상은 의원** 501이……

○**국방부장관 김태영** 501함, 즉 500t급의 해경정이 나왔습니다. 저희 PK는 대략 한 150t급이고, 그래서 150t급이 오니까 그때 벌써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의 계속 가라앉고 있는 상태이고 그때 풍량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 구조정, 구조를 할 수 있는 동그렇게 된 구조정을 내렸는데 그게 막 물에 쓸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묶어서 가까이 끌어다 놓은 상태고.

그런데 이 배로, 저희가 PK를 갖고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거기서 어려워했던 것은 PK가 파문을, 파도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배가 침몰하는 것을 더 가속할 우려가 있고 또 직접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깥쪽에 떨어져 있는 병사들을 찾기 위해서 돌면서 조

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해경정이 도착을 했는데 해경정은 500t급이라 훨씬 배가 안정돼 있고 또 거기에는 그 안에……

○박상은 의원 고무 단정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고무 단정이 있습니다. 단정 2척이 있어서 그 단정을 가지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구명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옮기는데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그 구명정이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실어 나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병력이 이쪽 해경정에 타 있고 또 해경정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해경은 일을 하고 해군은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저희 해군에서는 거기에 조명을 하고 또 주변에 흑시……

○박상은 의원 실종자 수색하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떨어져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상은 의원 결국은 해경이 56명을 구하고 어로지도선이 2명을 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구조작전이 아주 협동적으로 잘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게까지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 해경정에 45명, 고속정에 11명 그다음에 관공선에 2명을 탑승을 시켜서, 관공선은 바로 복귀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상자 2명을 태워서 먼저 출발을 시켰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상당히 인명구조는 잘됐는데 지금 문제는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이 아까 얘기하던 실종자에 대한 구조작업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 가족의 심정에서 볼 때는 그 이상의 비통한 실정이고 또 여러 가지 원망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장을 너무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타하는 것은 아쉽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지요. 지금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리가 통상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침몰사고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마치 타이타닉과 같은 로맨틱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가 전복이 됐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현재 백령도에서 지금 구출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바다가 아니고 여기는, 제가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m~2m만 들어가도 벌써 거기서 자기 팔목에 찬 시계를 읽을 수 없을 만큼 물이 굉장히 혼탁합니다, 서해가. 그래서 한 50m 정도, 45m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그 안은 완전 암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병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색(索)을, 인도하는 줄을 두 줄을 내려 보니까 거기의 물이 무려 5.3노트~5.5노트 정도의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이 엉켜 가지고 그 줄을 따라 들어가는 잠수사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을 할 수 없이 한 줄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속 타는 마음에서 볼 때는 줄을 열 줄을 매 가지고 한 20명을 한꺼번에 내려 보내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는 또 불필요한 희생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물의 온도가 한 3.5도에서 4.5도 정도가 됩니다. 물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이 잘된 잠수사도 20분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산소통이 밖에서 1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거기 들어가면 한 20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 산소를 압축된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소의 호흡량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돌아 나올 때에도 천천히 나오지 않으면 소위 잠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아까 말씀하신 뭘니까……

○박상은 의원 챔버.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 안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은 무사히 나온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왔을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회복을 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작전을 못 하는 것

은 아닙니다. 그 수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것을 요청 안 했는데 이게 뭐 민간에게도 요청 안 하고 마치 작전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나쁘게 말해서 실종자들에 대한 아무런 애뜻함이 없는 것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1명이라도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그날 들어갈 때는 헬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날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많은 전쟁이 있지만 사실 총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해군이 진력을 다하는 것을 봤고 또 그날 제가 우리 수색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백령도 옹진군 주민들이 수색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배에 들어갔는데 광양함에 제가 접안을 못 했어요. 하도 물살이 세서 배가 닿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표가 그렇지 물속은 물살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실종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싸우는 쪽은 많이 됐는데 후방 지원, 이번에 셸비지(salvage) 같은 것, 이 셸비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선내, 함내의 일은 아닌 것 같더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원인도 배제하지 않겠지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박상은 의원 그러면 결국 외적인 요인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아까 김동성 의원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92함 전담관을 했습니다. 사실 수심 30m 이내에서 어떤 잠수함이 들어가 가지고 어뢰를 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잠수함이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기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어제 지질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다이내마이트 약 175kg, 180kg 정도면 기뢰와 성능이 비슷한 정도의 화력이거든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여러 전문가까지를 다 불러 가지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느 가능성도 저희가 결코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러 분마다 그리고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여간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조사를 통해 확실히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이게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하기는 힘들지만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하여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갖고 그것을 자꾸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은 의원 이번에 우리 군사작전이나 구조작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지금 백령도, 대청도에 어군탐지기를 갖고 있는 어선이 약 120척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어민들을 동원해서 함미를 찾는 노력을 했으면, 제가 볼 때 시간을 한 이틀 버리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왜냐하면 사리로 갔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물살이 세져서 작업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 3, 4일을 버렸는데 앞으로는 군 자체의 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간인과의 협조해서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의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노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끝까지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감사합니다.

○**박상은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고맙습니다.

○**박상은 의원** 외교장관님!

장관님, 북한은 과거 88올림픽 때도 KAL기를 납치했고 2002년 월드컵 때도 연평해전을 도발하고 또 항상 우리 남한이 여러 가지 좋은 국제적 행사라든가 위상 제고가 있을 때마다 도발을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G20 회의가 열려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이 혹시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상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G20 정상회의와 혹시 연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대테러 대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이번 작전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천안함 사건과 작전권 문제를 직접 연관하는 사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라도 이것이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미 전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본 의원은 이미 2009년,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전작권 연기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현 차제에 이러한 전작권 연기 문제도 이제 한번 조심스럽게 거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이것과 직접 연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직접 답변 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은 의원** 최근에 미국하고 얘기 나눈 것이 있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얼마 전에 학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방부 간에, 군 당국 간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장관께서 지금 외교안보장관회의의 의장이시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뭐 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이번에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그랬고, 물론 대통령이 주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3월 26일 금요일 저녁에 사건 발생 직후 보고를 받자마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거기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하되 어떤 한 상황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가 급하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또 모든 노력을 인명구조에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박상은 의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해 NLL 지역은 2009년부터 북한이 미사일 실험부터 해서 또 NLL 무력화 등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혹시나 북한과 연관됐다고 할 때는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최근에 다녀오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다녀왔습니다. 천안함 사고 현장에 구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3월 28일 일요일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런데 총리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서해 특정 5개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없으면 남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략적 가치는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큰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난 2월 대정부질문 때 주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피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피지역을 좀더 현대화 해 달라고, 좀더 안전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서 서해 5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점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주민대피시설이 노후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현재 대피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에, 관심에 감사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방문하셨고……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 거기에 방문하셔서 가지고…… 사실 우리 국회의장도 엇그저께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위로·격려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총리께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가지고 부탁하셨는데 왜 주민들을 안 만나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때 다른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서 주민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님의 방문으로 백령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 긴급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결국 대통령께서는, 물론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총리께서는 그래도 내려서 주민들하고 악수 한번 해 주고 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 대피시설이 고쳐질 때 또는 다른 적절한 시점에 한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여기서 우리 서해 특정 지역은 정말 그야말로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합동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과 함께 해상에 있던 배들이 6척 있습니다. 또 2함대해군작전사령부, 합참, 해병 6여단 모든 합동작전을 했기 때문에 본 사실

에 있어서는 진실의 은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작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국력을 굳건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46명의 우리 군인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아울러 고한주호 준위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에서 해군을 비롯한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대응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실종자 구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원인 규명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의혹의 눈초리마저 보내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로 우리 장병들만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조하고 사대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국방부도 함께 실종된 상황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직후에 전문가들은 실종 장병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고 발생 후 69시간으로 예측했고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정부가 과연 69시간 내 구조를 목표로 움직였는지 묻습니다.

수상구조함인 광양함은 사고 발생 41시간 후에, 기뢰탐색함인 웅진함은 사고 발생 48시간 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중구조함인 청해진함은 사고 발생 후 6일이 지난 3월 31일에야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종자들이 있는 함미를 그것도 어선이 먼저 발견한 후에 6시간이나 지나서, 사고 발생 49시간 만에 발견했습니다.

정부의 느장 대응,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결국

생존한계시간의 3분의 2를 허비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머리 속에 69시간이라는 절체절명의 개념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총리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천안함이 침몰된 이후 정부는 장비와 인력을, 군과 민과 또 관으로부터 동원해서 우리 장병들을 구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전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 군에서는 기뢰 탐색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침몰된 천안함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백령도 어선에 구조활동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초기부터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능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아까 답변 중에 구조대원들을 바다 속에 처박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적절한 용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못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문학진 의원**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침몰된 함미를 찾는 데 49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서해 바다는 조류가 빠르고 물속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잠수해서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침몰 함정을 찾을 수 있는 기뢰 탐색함인 옹진함이 속도가 느려서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40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을 군은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촌각을 아끼기 위해서 옹진함에 탑재된 음파탐지기 생산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일은 고속 고무단정에 로프와 추를 연결해서 탐색작업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이 함미를 어선이 어군탐지기에 의해서 발견했는데 어선에 대한 군의 협조요청도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어선이 어군탐지기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군 기뢰탐색선이 도착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그 엄청난 국방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결과적으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함미와 함수를 찾지도 못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부분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발전시켜서 이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사안에는 더 완벽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만약 지금이라도 사경을 헤매는 생존자를 발견했을 경우에 현재 투입되어 있는 장비로 안전하게 그 사람들을 구조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현재 그렇게 하도록 준비가 되어서 거기에 나가 있고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능력을 가진 부대가 거기에 간 것 자체가 일단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현재 군이 천안함에 탑승했던 장병들의 근무지점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실종자 46명 중에서 32명은 함미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14명은 함미에 있는지 아니면 바다에 휩쓸려 간 것인지 지금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러면 함미에 남아 있는 실종자 구조작업과 더불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바다에 휩쓸린 실종자 수색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개념은 맞습니다. 말씀대로 선미에 갇혀 있는 생존자들이 있

을 수 있고 또 배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흩어져서 해저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저에 있는 인원에 대한 구출작전, 찾는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생존자를 먼저 구하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생존자 구하는 것에 우선 집중하면서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쌍끌이 어선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저께, 3월 31일에 모 방송사가 천안함 실종자의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단독으로 보도했다가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시신이 발견된 적이 없고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는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고려해서 기사를 삭제한 것이지 오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사의 관계자는 ‘사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송사에서는 ‘군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님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닉슨은 거짓말하다가 정권 내놓았습니다. 자칫하면 이 사안이 정권의 명운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보도된 당일 날 즉시 해당 방송사 출입기자하고 정치국장에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임을 저희가 항의를 한 바가 있고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도 이게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한 것이 도움이 됐는지 다른 매체에서는 이런 사안이 일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고, 있었으면 저희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살아서 발견됐으면 더 좋지만 하여간 시신이 나오는 것도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성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밝혔을 텐데……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정보도를 또 요구할 예정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학진 의원** 아직 정정보도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추가적인 요구를 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정정보도 요구를 한 번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치국장하고 출입기자한테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문학진 의원**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고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신속 정확한 보고는 군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고 발생시간과 관련해서 애초에 9시 45분이었다가 어제는 9시 22분으로 수정이 됐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오늘이 사고 발생 8일째입니다. 사고 발생시간조차 오락가락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소위, 사건이 발생하고 초기단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워낙 떨어져 있는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그것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최초 보고만 믿고서 일단 언론에 알려 드렸고 또 그 후에 추가확인된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최종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시 22분, 21분 58초인가 하는 시간대에 폭음이 있었고 그때 배가 깨지는, 소위 반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수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음모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초기 조난단계의 보고 자체가 부정확한 보고가 여러 계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시중에서는 약간의 음모론들이 번지고 있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듣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것을 음모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음모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학진 의원** 천안함은 백령도 앞 약 1마일 지점에서 침몰했습니다. 초계함인 천안함은 고속정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백령도 연안에 가까이 접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군 책임자들의, 장관 포함해서 해명이 서로 달라요. 합참공보실장의 3월 28일 브리핑은 그 지역에서 작전활동을 하던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기상이 워낙 나빠서 바람을 막기 위해 간 것이다, 피항이다 이렇게 보고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교들이 보고할 때 물으시면 답변드리는 것이 작전을 하고 있다, 경계작전 이런 것들 다 작전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합참 공보실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새로운 전술에도 대응하기 위한 그런 요소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한 그 당시에 풍량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섬에 가까이, 그렇게 작전구역 내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작전구역을 약간 벗어났는데 그것은 바다에서의 작전에서는 작전구역 선이 지상에서처럼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도상에는 명확하게 그러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작전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데 초계함인 천안함보다 훨씬 작은, 규모가 작은 고속정 또 해안경비정 이런 것들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출동을 할 수 있는 기상상태였거든요, 그날 3월 26일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데 초계함이 기상 때문에 피항했다는 것은……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피항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바람을, 그러니까 풍량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항이라고 해서 그리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작전을 수행하기……

○문학진 의원 그러면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옛그제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이었네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잘못된 것이 아니고 피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쓰는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말인 피항이라는 것은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피항이라고 말씀드렸고 항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항구는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학진 의원 사고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갖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요? 어뢰공격설, 기뢰에 의한 피격설, 암초에 의한 좌초설, 피로파괴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께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추측과 혼란을 정리해 줘야 할 의무가 정부에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데 이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어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어뢰공격설을 얘기해 보면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북한군 도발과 관련한 특이활동이 없다 이랬지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사령관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다음에 북한의 반잠수정 활동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데 한편 동시에 국방부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도 있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학진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은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조사가 되지 여기에서 아직 아무것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데 사정은 다소 이해는 가지만 이미 북한의 도발 관련 정황이 없다, 이것은 국방부가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 당시의 북한 군사적인 움직임은 저희가 중심까지 죽 봐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중심까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큰 움직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북한은 아주 특이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수한 부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대들이 그러한 가운데에도 또 별도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데 북한 움직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능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이 현대화됐고 매우 고도로 첨단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해서 북한 움직임 정도는 말하자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미군도 엄연히 주둔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정보가 부재한 것 아닌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아주 짙게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국민들께서 그런 면에서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미 연합으로 모든 정보체제를 운영하면서 한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수단을 풀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24시간 내내 적을 그렇게 100%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적 지역을 사진으로 찍어 낸다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또는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적 지역을 스크린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보라는 것이 적을 100% 손바닥에 보듯이 보는 것은 어느 나라도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군대 가시거나 또 국민들이 군에 있을 때처럼 그런 정도는 훨씬 뛰어넘어서 훨씬 많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정보는 항상 어느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문학진 의원** 그러면 어뢰 또는 기뢰 피격설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어뢰나 기뢰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높이 치솟는 물기둥이나 불기둥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승조

원들이 흠뻑 젖거나 아니면 화상환자가 발생해야 그 설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이 간단하지요? 구조된 장병들로부터 확인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국방부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뢰를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직격으로 맞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배 밑에서, 배와 약간 거리가 한 몇 미터 떨어진 데서 폭발해서 버블제트에 의해서 배 허리를 꺾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격을 할 경우에 가령 후미에 직격하면 후미에 있는 거기에만 어떤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갈라졌는데 갈라져서 가령 그 후미 쪽에 어디를 맞았는지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하나로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데 어쨌든 흠뻑 젖은 장병이나 화상환자는 없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제 그게 생긴다면, 뒤쪽에 맞았다면 뒤쪽에, 지금 소위 우리가 생존해 있기를 바라는……

○**문학진 의원** 함미……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러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신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데 국방부는 암초에 의한 좌초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해군이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할 때 “좌초에 처해 있으니 구조해 달라.”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경은 “사고지점 인근에 암초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문학진 의원** 그다음에 백령도 주민 또한 “사고지점에서 850m쯤 떨어진 곳에 해도에 나오지 않는 수중 암초가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사고지점과 수중 암초의 거리를 10km라고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문학진 의원**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800~850m 떨어진 곳에 수중 암초가 있는 것으로……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암초에 의한 사건 발생 가능성도 똑같이 열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진 의원** 그러면 처음 국방부 입장에서 바뀐 것입니까? 처음에는 아주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실무자들 선에서 발표할 당시에 예하부대에서의 보고에 많이 의존해서 발표를 하니깐 그 당시에 최초에는 저희도 거의 적에 의한 공격을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이쪽 함에서, 삼척함에서 별도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의 공격 가능성에 굉장히 저희가 비중을 두고 처음에 봤습니다.

○**문학진 의원** 사격을 한 것은 속초함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속초함이 쏜 것인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봤기 때문에 처음에 혹시 그런,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위주로 많이 생각이 좁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암초에 의한 가능성도 같이 열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km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홍합여라고 해서 홍합이 많이 나온다는 암초가, 그것이 지금 저희 함수가 발견된 데서는 한 0.8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00m나 800마일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거리인데 저희가 사고가 난 곳은 거의 한 7~8, 거의 한 1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필요하시다면 여기 저희가……

○**문학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고지점에서 수중 암초 지점까지 800~850m……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 말씀은 홍합여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 외에도 크고 작은 암초들이 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군이 '좌초했으니 구조해 달라'고 해경한테 처음에 요청을 했잖아요? 좌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배가 암초에 얹힌다는 것 아니에요?

(문희상 부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문학진 의원** 좌초라는 이 용어를 제일 잘 아는 데가 해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스스로 좌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애초에 좌초 가능성을, 암초에 대한 좌초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고 극구 부인을 했었어요. 애초에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음에 보도가 나갔을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에, 제2함대에서 해경에 연락한 것에 좌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해군에서 통상 그러한 어떤 구조를 요청할 때 일방적으로 그렇게 쓴다 해서 그게 좀 저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을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상세히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리고 천안함 실종자 중 한 명이 사고 당일 9시 16분경에 가족과 휴대전화를 하다 '지금 비상이니까 나중에 통화하면 좋겠다'고 전화를 끊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다음에 차균석 하사가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통화가 끊긴 시각도 같은 시각 9시 16분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제 사고 발생시각을 9시 22분으로 정정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문학진 의원** 그것과 통화가 끊긴 9시 16분과는 6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6분 사이에 천안함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문학진 의원** 군함에서의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적의 도발이 예상돼서 전투태세를 갖추는 경

우, 아니면 선박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뭐 이런 것을 상정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6분 뒤 사고 발생 후에 구조된 장병들의 복장을 보면 대부분 전투복이 아닌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전투태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박 자체의 문제로 비상 상황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요?

그리고 천안함 사고 당시에 평소 장병들이 들어가지 않는, 긴급 상황이나 들어가는 후타실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군이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타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천안함이 암초 등 외부충격에 의해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사고 당일 9시 16분 천안함에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에서는, 가장 명확한 것은 인양이 다 되고 나서 보면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현재 생존한, 지금 살아서 나와 있는 그 인원에 대한 조사가 지금 거의 유일한, 확실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많은 사안들이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아마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그것만 가지고도 명확한 사고 원인과 또 한 6분 동안에, 7분 동안에 뭐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교신기록 공개 왜 안 합니까?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는 교신기록을, 의혹이 자꾸 일어나니까 교신기록을 공개한 전례가 있거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데 그때……

○**문학진 의원** 우리 당에서요, 민주당에서 3월 30일에 국방부 합참에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50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군사비밀로 공개불가’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시는 교신기록

은 그 속에 폭넓게 많은 부분에서 군사적인 내용들이…… 왜냐하면 교신기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함대에서 앞에 나가 있는 모든 함정을 통제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부 통제하는 그런 교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많은 군사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인이 봐서는 잘 이해도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해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하고 나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게 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진 의원** 일반에 공개하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면 국회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뭐 필요하시다면, 일부 국회의원에서 꼭 보셔야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민·군·관이 같이 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백한 사안을 밝혀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신중하게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진 의원** 장관, 지금 각종 의혹이 너무 난무하고 국민들이 정말 뭐가 뭔지 막 헷갈려하고 이려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군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장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하여간 그런 면에서, 저의 성격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명백백 밝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학진 의원**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 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문학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진래 의원 소개로 해서 지역 군민이신 경남 함안군 군민 서른다섯 분이 와 계십니다. 지금 군민 여러분들은 현장에 와 계신데 궁금증이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천안함 사고가 난 게 정확하게 몇 시인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3월 26일 금요일 오후 9시 22분경인 것 같습니다.

○박선영 의원 확실한가요, 그 시간은?

○국무총리 정운찬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오후 9시 22분경입니다.

○박선영 의원 그동안 사고 시간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몇 번이나 말을 바꿨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시 45분, 30분, 25분 등 여러 번 바뀐 것 같습니다.

○박선영 의원 무려 다섯 번을 바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사건 시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이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을 보면 청와대하고 군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날짜별로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거나 횡설수설, 오락가락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헛갈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답답하고 허전합니다. 그 시간에 왜 초계함이 2대나 백령도에 갔을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평상시 업무를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무슨 평상 업무인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초계함이라고 하는 것이 적이 올 것에 대비한 경계함들 아니겠습니까?

○박선영 의원 그 시간에 백상예술대상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백상예술 중계를 보다 명확하게 깨끗한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 백령도가 가까이 갔다’ 이렇게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정말 치욕적인 루머지요. 그런데 이런 루머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 각종 유언비어가 떠도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박선영 의원 아니,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왜 생길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우리 사회에 불신풍조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선영 의원 왜 불신이 생길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

○박선영 의원 정부와 군이 정확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국회에서 있다고 하니까 지진과 얘기도 어제야 얘기하고, 시간을 9시 22분이라고 무려 23분이나 당기는 것도 어제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루머를 없애기 위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야 비로소 9시 45분이 9시 22분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루머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특히 아주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금방 예단을 해서 결론을 낸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하나도, 아무 가능성도 하나도 단아 놓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보다 철저한, 좀더 치밀한 원인을 규명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기다리면 그동안에 발표가 없었던지 해야지요. 계속 말을 바꾸고 횡설수설 소설 쓰면서 오락가락하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에서 말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박선영 의원 자,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일 바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북한의 반잠수정입니다. 지난번

에 잡힌 겁니다. 사고 수역의 해심이, 수심이 20~40m로 얕아서 스노클(snorkel)만 내놓고 다니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장인 우리 최원일 중령이 첫 보고를 하면서 피격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함장은 노련한 해군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우리 국군을 믿습니다.

○박선영 의원 노련한 해군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함장하시겠지요.

그런 분이 '피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피격'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단어가 잘못된, 일시적으로 잘못 나온 것일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우리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말이 바로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후타실에 우리 수병들이 5명 있었다 그러는데 어떤 때 후타실에 우리 수병들이 들어갑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과 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관계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군대 안 다녀오셔서 그러시지요. 저도 군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는 4성장군 출신도 계시지만 오늘 긴급현안질의 제가 합니다.

그동안 안보대책장관회의도 참석하셨었지요? 대책회의에 참석하셨었지요? 이 정도는 공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제보로, 그리고 아까 우리 국방장관도 답변을 하셨듯이 사고 당일 전후로 해서 잠수정이 4대, 북한 잠수정이 4대 움직였던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2대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까 들었습니다.

○박선영 의원 우리 초계함 2척이……

아까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전에 들었지만 아까 또 들었습니다.

○박선영 의원 우리 초계함 2척이 불과 45km의 거리를 두고 백령도 근처를 순항한 이유는 백상 예술제를 TV에서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 잠수정이 출몰했고 그들이 우리 초계함을 유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고 맙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반파된 이유가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함……

○국무총리 정운찬 국방부장관……

○박선영 의원 잠깐만요. 제 질문을……

○국무총리 정운찬 국방부장관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전부 열어 놓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뢰가, 우리 천안함을 타격한 어뢰가 속초함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우리 국방장관한테 어뢰에 의한 피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씀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는 오늘 답변을 잘 하셔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국무총리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존경하는 박 의원님!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군통수권자에 대해서 지나친 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결례 아닙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폐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폐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오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함에서.

○박선영 의원 새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원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레이더에 탐지가 됩니다. 그리고 함포사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새떼가 북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6mm 함포를 130여 발, 5분 동안 쏘아냈는데 그 새떼는 무적함대입니까? 어떻게 북한까지 가서 소멸을 또 하다니요? 북한에 가서 날았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에 가서 소멸했다. 그런데……

○국무총리 정운찬 새떼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나타난 그 새떼 같은, 새떼가 없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선영 의원 속초함에 무슨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박선영 의원 어떤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속초함이 보유한 레이더는 대공레이더가 아니라 대함레이더입니다. 이 대함레이더는 잠수정을 찾기 위한 것이고요, 이차원 영상입니다. 이차원 영상의 대함레이더이기 때문에 수면과 물체가 겹쳐서 보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새떼라고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포사격을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새떼를 이상비행물체로 오인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했다고 하는 것을 군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믿지요, 믿지요. 우리 당만큼 군을 믿는 정당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가 여기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면, 45km 뒤에서 따르던 속초함은 반파돼서 수병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구조하지 않고 NLL 서북쪽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제가 생각하기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박선영 의원 전시에 준하는 작전, 적의 침투 내지는 공격이 있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평시에는 인명 구조가 우선이지요. 그러나 전시태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국방부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전시작전에 돌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떼를 이상비행물체로 오인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전시태세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옆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책임지셔야지요?

그리고 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10시 55분에 미상물체를 여기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쏘지요, 쏘는데 이 미상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재접촉해서 소실되어, 소실이라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책임이 무서워서 미상물체라고 했다가 새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툭 하면 새떼한테 핑계를 돌립니다.

지난해 10월 17일 백령도에서도 새떼를 북한 항공기로 오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4일에도 경기도 포천에서 새떼를 북한 미그기로 오인해서 F-16을 출격시켰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우리 국군은 만만한 게 새떼입니까?

이어서 더 중요한, 북한 연계성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사고재난지역에 헬기가 곧바로 떴지요? 어떤 종류의 헬기가 떴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

○박선영 의원 군대 다녀오지 않은 여성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상구조용 헬기가 아니라 잠수함을 찾아내는 대잠수함용 링스헬기였습니다. 왜 링스헬기가 떴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왜 링스헬기가 떴을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박 의원님, 지금 이 자리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대신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테크니컬한 것은 관계 국무위원이 대신 대답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존경하는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과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국무총리,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비서실장과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국정원장이 모여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라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 충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선영 의원** 저는 총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박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국군통수권자에 대해서 결례의 말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저는 국군통수권자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국민을 안심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정황 증거를 또 대겠습니다.

의회청문회 일정으로 출국했던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왜 급거 귀국했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정상적인 일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일 마치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세입·세출소위원회 청문회는 마쳤지만 국방위원회 청문회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고 26일 날 밤에 사고가 나자 27일 날 바로 급거 귀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미 청문회에 참석했던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귀국 후 북한군에 의한 어떠한 특이 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난 2차 연평해전 때 미군은 우리에게 북한 도발이라 그랬지만 우리는 우발적 월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매우 위험한 이견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다음부터 미국은 매우 냉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만일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북한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면 그리고 암초이거나 또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피로파괴 사건이라면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 청문회를 앞두고 그렇게 급거 귀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주한미군사령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고의 원인

을 아무런 편견도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선영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이게 북한의 해군기지입니다. 이 북한의 해군기지는 우리 속초함에서 불과 30~40km 떨어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쏜 미사일은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였는지 아십니까? 130km까지 날아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격이었습니다. 이것 괜히 이런 사격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만 제대로 전달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유언비어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발표를 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6자회담 당사국이 아닙니까? 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책임 있게 철저히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와 군의 말이 다르고 발표할 때마다 오락가락 횡설수설 소설을 쓰는 것이 하는 이유는 바로 4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로 마무리가 다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원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치 않은 돌발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에게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적·물적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은 ‘북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이번 사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입장하고 남북정상회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과 정부가 실종장병 구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박 의원님께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의혹성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의혹성 제기가 아니라 제가 좀 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정보원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 총리께서 어느 정도 국정을 파악하고 계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북에서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호한 대처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만약에……

○박선영 의원 단호한 대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원인이 밝혀지면 그다음 여러 가지 대책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인도 잘 모르는 마당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대통령께서 전제조건을 다셨지요. ‘북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고 전제조건을 다셨습니다.

처음부터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던 대통령인데, 후에 어떤 형태로든 북의 소행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북이 납득할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박선영 의원 아까 제가 도표 만들었던 것, 김은혜 대변인이 첫날 브리핑한 겁니다, 새벽에.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 국민 중에는 상당수가 이번 사고를 북의 소행이 아닌 피로파괴거나 아니면 암초사고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은 고사하고 우리 국민들마저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호한 대처

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파편 찾고 계시지요, 사고해역에서?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영 의원 얼마나 걸려야 파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파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그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님, 지금 급한 게 실종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파편을 찾는 일에 한미가 공동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공격임을 밝혀 내기 위해서 해저에서 남의 영해까지 들어가서 파편을 딱 두 조각 찾아냈습니다. 파편 찾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편을 찾아낸들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 몇 년 뒤에 보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셔야 합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원인이 무엇이든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가 생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청와대와 군이 다소 성급하게 오락가락하는 발표를 해서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라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는 국제사회에 해결을 모색해 달라고 부쳐야 합니다.

사고 지역의 해류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면 튕겨져 나갔을지도 모르는 우리 수병들도 이미 북쪽으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 전력 가운데서도 가장 유용한 등급의 함정인 이 천안함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렇게 대파되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방부에서는 사고가 나자마자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저희는 정확하게 그당시에 특이한 동향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영 의원 사고 당일을 전후해서 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 잠수정이 보였었고, 2대가 없어졌었고, 그랬고 또 비행편대도 나타났었는데 어떻게 특이동향이 없다고 발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들으시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동향이 있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비행편대가 나타났던 곳은 어디냐 하면 남북분계선으로부터 약 30km 그 이상, 그 이북에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즉, 그것은 북한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공군훈련을 하더라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사안이 안 되고, 그 외에 지금 일부 함정이 안 보이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라는 것은 저희가 24시간 내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때 기상이 나빠서 그쪽 지역이 좀 안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함정 몇 척을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한 사안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또 그 외에 통신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전부 봤을 때, 또 배한 척 두 척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특이한 동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국방부장관님, 그날 해상의 날씨가 나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기상청에 확인했습니다. 그날 파고는 1m밖에 안 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날씨는 맑았습니다. 그게 해상의 일기가 나빴던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정확하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2.5m~3m였습니다. 그다음에 풍속도 있었고……

제가 정확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저도 정확한 거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올라가는 기상 정보와 인터넷에 뜨는 기상 정보가 다른 것입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보고 이 총무공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볼 때는 이 총무공께서도 아마 지금 여기 계시다면 이 사안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 예단해 가지고 그거를 갖고서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저는 준비합니다. 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합니다. 마는 그걸 갖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그런 사고 원인을 밝히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현재 지금 물 속에 있는 46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보다 본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지금 실종자 수색하는 것을 마다할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이 오락가락 했습니까? 말을 바꾼 건 정부입니다. 청와대였고 그리고 군대였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제가……

○**박선영 의원** 그런 오해를 가져오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와 국방부, 군의 발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에서 상황 파악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보고에서 여러 가지 좀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안이 바다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 사안을, 저희가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사안을 보고에만 의존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보고서를 한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새로 조사하면서 지금 명확하게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고, 지금 모든 사안을 열어 놓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내용을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단을 했던 것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자 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이 결과를 발표해 내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도 외국도 북한도 납득시키고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국제사회와의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불필요하게 어떤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는 조사 노력을 흔들리게 하고 휘방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밝힐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박선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증폭시키고 문제를 야기한 것은 대통령과 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윤성 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KBS를 비롯해서 SBS가, YTN도 국회 실황을 중계를 했습니다. MBC의 경우에 4시 반까지 실황 중계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상에 관해서 한두 번 언급하시는 것은 상황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지를 하지 않았습시다. 되풀이될 때는…… 여기가 국회 본회의장이고 전국적으로 이 상황이 중계되는 가운데, 좀 삼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도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장이 무너지는 질문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분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답변을 해야지, 어처구니없는 듯이 말이지……

하여튼 좀 우리가 격을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격, 우리 국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서울 동작구 민주당 국회의원 전병헌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과 구조대원들의 헌신에 존경을 보내면서, 제2의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국방부장관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시간이 26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 동안 무려 네 차례 변경되는 오락가락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관, 물 속에서 대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난번에 나온 것에서는 69시간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병헌 의원 아니요, 산소 없이 물 속에 잠겼을 때……

○국방부장관 김태영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개인의 체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장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전병헌 의원 26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 동안에 무려 사고시간의 변경 차이가 24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 속에서 3분이면 생과 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24분의 차이를 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고 발생시간 파악조차 명확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기 상황관리가 부실하고 위기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상징적인 징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OD 촬영 화면과 인공지진과 탐지 발생시간

으로 국방부가 대체적으로 시간을 추정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여러 번 바뀌게 된 것은 저희의 불찰도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우선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에는 함장의 진술에 주로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파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21시 22분이 적절한, 정확한 시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전병헌 의원** 제가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함에는 레이더 화면이 5개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 레이더 화면 5개 중에서 1개의 화면은 KNTDS 시스템에 의해서 4개의 지통실하고 직결 연결되어 있지요? 2함대사령부·해작사·해군본부·합참,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레이더도 중단이 됐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러면 레이더가 중단된 시간이 사고시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확인했을 때 저희가 보는 21시 22분이……

○**전병헌 의원** 그런데 왜 초기부터 레이더 확인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해군 측이 아닌, 국방부의 직할 체제가 아닌 병사의 TOD 촬영 화면 자료와 그리고 지진파 관측 자료를 가지고서야 정확한 사고시간을 발표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해군이나 우리 국방부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정확한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그런 면에서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연결되어 있다가 통신이 딱 두절되는 순간이 사고 시간이

라는 사실을 당연히 추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저희는……

○**전병헌 의원** 그것을 왜 이제까지,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그것 외에도 그 안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고라는 것은 맨 처음 시작하는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더가 끊어진 시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진이 난 시간, 어떤 뭐가 폭발한 시간, 그 시간만이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또 그 앞에 언제부터 그 사건이 뭐가 시작됐는가를 추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물론 그런 것을 다 추적하고 나면 정확하게 뭐가 언제부터 있는지…… 아까 말씀이 16분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병헌 의원** 보다 많은 자료를 종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정확한 보고를 하는 것이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방부 내지는 합참, 해작사, 해군 본부, 2함대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고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상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병헌 의원**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초동 대응에, 물론 아무리 잘해도 다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부분, 대단히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다 부분적인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몇 가지는 그런 대로 우리가 조치를 제대로, 해군들이 조치를 제대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로 몇 가지는 잘됐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헌 의원** 초동 대응의 기본은 생존자 구출, 그리고 침몰 선체에 대한 인양, 그리고 실종자 구조작업 이것이 기본이겠지요? 이 세 가지 분야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런데 침몰 함미와 함수를 찾는 데만 무려 2~3일이 걸린 것은 초동 대응을 매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니다. 우선 생존자들을 구출하는 그 자체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댔습니다. 그러나 함미와 함수는 그 순간에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선 생존자를 구출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급했고 또 이미 함미는 폭발 순간에 바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가 어려웠고 함수도 바로 그다음날 오전에 마지막 모습에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은, 물론 초동 조치 단계에서 그런 것을 다 완벽하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했었습니다.

○**전병헌 의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구멍 뚫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군의 구조작전을 보면 기본적으로 위기 관리기본대응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구조, 구난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하나도 적용이 안 났고 일반 민간 선박이 침몰한 것에 대한 그 적용조차도 수준에도 미달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초동 대응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잘못 말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잘했다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몇 가지 부분은 잘 이루어졌는데, 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지금 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26일 날 사고가 나고 29일 날에 서야 잠수 대원들이 사실상 구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든, 실종자들이 그 안에 있든, 생존해 있든, 또는 다른 불행한 일을 당했든, 떠내려갔든 일단 선체를 인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런데 왜 선체 인양할 해상 크레인을 29일 오후 2시에 출발시켰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인명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인명구조. 그래서 인명구조가 먼저 진행이 되고……

○**전병헌 의원** 아니, 장관 이거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지금 저쪽 거제도에서 선체를 인양할 해양크레인이 출발되면 인명구조를 못 합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전병헌 의원** 말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우리가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함정을 결박을 해야 하고 함정을 결박해서 그것을 크레인에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여러 명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명을 구조하는 작업하고 그 작업은 별개의 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은 인명 구조고 인명 구조가 다 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만 저희가 선체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아니, 장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제도에서 백령도까지 해상크레인이 오려면 5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도착했지요, 이제.

○**전병헌 의원** 아니,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했습니다.

지금 첫 척, 2200t짜리는 도착을 했고 3500t이 오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거제도에서 출발해서 백령도까지 오려면 5일 걸리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리고 해양 크레인이 백령도까지 이동하는 시간에는 수색 작업 못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왔습니다. 도착이…… 그런데 왔는데……

○**전병헌 의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26일 배가 침몰하면 즉시 해양 크레인을 수배해서 출발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맞습니다. 그래서……

○**전병헌 의원** 그래서 거제도 인근에서 빨리 출발시켜서 백령도에 5일 소요를 해서 도착한 뒤에는 계속 인명 구조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명 구조 잠

수 활동이 끝난 다음에 해양 크레인을 통해서 인양작업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는 상식적인 절차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지요.

○전병헌 의원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삭을 하고 그것을 연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집에서 보따리 꾸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작 크레인이 작동을 하는 시간은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며칠이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크레인은 비교적 작업 저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일찍 온 감이 있을 만큼 제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고 하나가 더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고 저희한테 배려를, 신경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것은 인양작전은 이상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병헌 의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감압 챔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그리고 용진함과 양양함에도 감압 챔버가 있다.

용진함과 양양함에 있는 감압 챔버가 풀 스케일 감압 챔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풀 스케일이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1인용입니다. 한 사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1인용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간이이동식 감압 챔버로서 상당히 효용성 떨어지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병헌 의원 그래서 장관, 보세요. 오늘 오전에 해난구조대에서 2인 1조씩 1개 조만 투입을 하다가 오늘부터 2개 조를 투입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국회에 나오면서 그런 것도 확

인하지 않고 나오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런데 왜 아까 이종걸 의원 발언에 그렇게 대답하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선 지금 이 챔버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챔버는 올라오면서 어떤 잠수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대가 있으면 6명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우선 되면서 그 주변에 지금 여러 개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한 20명이 동시 치료가 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치 챔버가 없어서 작전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을 설득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초동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시인하셨지요,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두 번째, 용진함이 도착하면서 사실상 함미를 정확하게 찾아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확인도 했고, 용진함과 양양함이 소해함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런데 이 용진함과 양양함이 진해에서 모두 출발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진해에서 출발하기까지 10시간이 걸렸고, 진해에서 백령도까지 오는 데 40시간이 걸려서 총 50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소해함을 2함대, 즉 서해 쪽에 2대, 1함대, 동해 쪽에 2대씩 양쪽에 배치를 해서 신속한 기동성과 신속 대응 능력을 유지했어.

그런데 왜 소해함들을 모두 진해에다가 그야말

로 장관식 표현대로 하면 처박아 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왜 진해에다가 소해함들을 모두 처박아 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병헌 의원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동쪽에 소해함이 2대, 그리고 서쪽에 소해함이 2대 이렇게 양쪽에, 양 날개에 배치해야 실질적인 신속 기동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왜 남쪽 끝 바다에다가만 소해함을 집중적으로 집결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병헌 의원 용진함이 도착할 때까지 평택에 있었던 것보다 4배 이상이 걸린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뢰탐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있느냐면 적이 기뢰를 깔아 놔를 때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뢰를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또 통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력 운영을 여기저기 뿔뿔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집결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진해기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전력을 더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러면 과거 정부에는 그런 위험성이 없어서 분산 배치한 것이고…… 집중 배치했다는 겁니까? 개념이 틀린 것 아닙니까, 개념이?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고려했습니다.

○전병헌 의원 장관,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왜 소해함이 동쪽 동해바다에, 서쪽 서해바다에 분산 배치되어 있지 않고 진해 남해바다에만 집중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은 정치권의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소해함을 진해에다가 집중 정박시켜 놔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전 정말 기상천외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의원 기상천외한 것이 아니고 해군사령부가 진해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니 거기 병력 군 장병 250명의 인원이 빠진다고, 진해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정치권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을 맞춰 주기 위해서 소해함들을 다 진해에다가 집결시킨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는 의원님께서 아마 제 자리에 와 계시면 그런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비슷한 판단을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병헌 의원 장관,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에서처럼 소해함을 평택항에다가 정박시켰다면 4분의 1 시간 만에, 11시간 만에…… 50시간 걸려서 도착할 시간에 11시간 만에 백령도에 도착해서 보다 빠른 구조 활동, 보다 빠른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비효율과 무능이 드러난 것인데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문제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속초함 주포 75mm 130발을 쏘았어요. 새폐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전병헌 의원 속초함도 레이더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KNTDS 작동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그러면 2함대, 해작사, 해군본부, 합참 여기에 레이더 영상본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공개하십시오. 공개를 하면 이 모든 의혹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공개를 안 하고서 의문을 자꾸만 키우고 확대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전병헌 의원 두 가지의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매우 극단적인 냉전주의자들은 북한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확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중의 의문은 천안함의 침몰을

북한의 도발로 교란하기 위한 그런 사격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이러한 옳지 않은 부정확한 루머와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개 본부에 녹화되어 있는 레이더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관·군으로 편성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그것을 조사해야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을 다 천하에 내놓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의원** 장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또 반대로 천안함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교전 상황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발표를 지시한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던 말이에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빨리……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전병헌 의원** 화면을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얘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화면을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저희지 일반 국민들이 봐서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병헌 의원** 장관, 함미를 발견한 것도 민간 어선입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알아보지 마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병헌 의원** 이 레이더 관측과 판독 전문가가 군에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 국방부나 군을 편성을 왜 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말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전병헌 의원** 지금 군에서 의혹을 키우고 제대로 된 보고와 확인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가야지, 지금 가서 그것을 내내라 하면…… 저희 국방부와 군을 뭐하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병헌 의원**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부상자 52명을 수도병원으로 격리했지요? 그리고 그 부상자 52명의 친구들이나 친·인척들은 면회가 가능합니까? 지금 경미한 환자들조차도 중환자실에 있다고 핑계 대고 직계가족 이외의 어떤 사람도 면회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모든 휴대폰도 다 수거하고? 이와 같이 비밀통제에 들어간 이유가 뭐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병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병력들입니다. 초동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살아 왔다는 그런 부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초동조치에 지금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자, 지금 현재 국방부와 정부가 위기대응조치는 완전히 초보 아마추어 수준이고, 가리고 은폐하고 숨기는 데는 완전히 프로 9단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매우 분개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 점을 감안해서 빨리 생존자에 대한 면회도, 접근도 허용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끝내고 치료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께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어떤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총리, 나오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감사합니다.

○**전병헌 의원** 총리는, 천안함 침몰이 만 일주 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40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들의 생존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구조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들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 여기에 나오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갖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완전히 파악은 못 했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자, 지금 국방부장관과 제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전병헌 의원 초동대처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국무총리 정운찬 초동대처가 잘됐다고 하는 말씀은 사고 초기에 함장이 갑판에 있던 20명과 함께 함수에 있던 38명을 구조하고 배를 마지막 순간에 떠났다 그런 의미에서는 초동대처가 잘됐다는 뜻인데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젊은이들을 구해 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그동안의 작업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자, 이와 같이 일주일 지나도록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없고, 또 수색을 하던 UDT 베테랑 준위가 사망을 하고,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기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의혹과 의문의 확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작업 문제 등등에 대해서 총리는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일주일 지나도록 아직 실종 장병을 구해내지 못한 것, 또 사회에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사죄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46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생사를 모르는 채 일주일을 지나고 있고 지금 초동 대응은 완전히 엉터리이고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행정을 통할하는 총리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운찬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사과는 못 하겠다?

○국무총리 정운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병헌 의원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갖고서도 총리가 백번 천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전병헌 의원 정말로 총리의 사과는 너무 비싼 사과인 모양이네요. 제가 그러면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군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천안호 침몰 사고로 인해 민주정부 시절 연평해전으로 국민적 영웅이었던 해군이 비탄과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능한 지휘부로 인해 국가안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군 장병들이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혹과 의문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실의 힘만이 국민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실효적 구조 방안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한심하고 무능한 조치에 대해 그리고 너무 황당한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리가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나……

○국무총리 정운찬 존경하는 전 의원님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본인이 사과할 용의는 끝까지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어떠한 단어를 쓰더라도 거기에 또 꼬리를 붙이고 다른 말씀들을 막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병헌 의원 아니, 사과에 무슨 꼬리가 붙지요? 현재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총리께서 군이 최소한의 위기 대응 매뉴얼조차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이 총리로서, 일국의

총리로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그게 책임있는 자세입니까?

(「나중에 할 때 되면 다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정운찬** 정말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준위의 살신성인적 애국심, 또 영웅적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총리로서 좀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가 밝혀진다면 그때 사과해야 된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제가 총리께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물러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머지 질의를 답변하실 겁니다. 아까 어떤 여당의원 질문에 그러시고 지금도 그러셨는데 총리,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미소 떨 때가 아니라 접을 제가 분명히 경고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 어디 미소를 띠었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디 미소를 띠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녹화테이프 볼까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윤성** 전병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나섰지만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생존자 구출, 그리고 원인 규명에 전념해야 될 주무 장관, 그리고 핵심 인력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들여 가지고 이 질타, 그리고 책임론에만 올인하는 긴급현안질의, 이것이 과연 순서에 맞는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긴급현안질의 하자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출석하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채 반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긴급현안질의의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질의에서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온 총리 운운 하

면서 정치공세에만 급급한 분이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긴급현안질의의 올바른 목적이요 취지였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사과하십시오. 공식으로 정식 사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긴급현안질의 그리고 이번 침몰한 천안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인명 구조, 둘째도 인명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재를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긴급현안질의가 국가의 영토 수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국방임무에 매진해 온 대한민국 군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군 대응에 문제가 있으면 신랄하게 지적을 하되 지금 시중에서 떠다니는 혼선, 오해가 해소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초기의 상황일지 기록에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설명을 하셨는데, 즉, 초기 보고, 중간 보고, 또 최종 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초기 보고할 때 몇 시경으로 보고를 했으면 좀 질타가 덜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초기에 정확한 시간보다는 개략 했더라면 이런 것이 좀 적을 수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는 저희는 정확한 시간 위주로 해서 일단 파악된 대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정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언론에 이것을 발표하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뭘 속이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더 저희가 정확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때 정황에 맞는 식으로 저희가 언론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사고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문이 나왔고 또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잔해를 인양해야만 그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적어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좌초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 또 기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오늘 오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모든 것은 다 저희가 열어 놓고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북한에 의한 위해 가능성도 저희가 이것을 닫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잘못에 의해서 좌초라든가 또는 함정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분명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이런 것을 뭐 말투를 봐 가지고 그것은 아마 저것은 어뢰일 것이다, 이것은 기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투를 묻고 늘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이 조사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될 때까지 좀 그런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심증만으로 단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 천안함이 침몰된 모양을 보면 반파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 반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기 자료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저기가 절단면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지금 그리신 것이 거의 맞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런데 이게 암초에 의해서 좌초가 된 것이라면 함이, 배가 앞에서 뒤로 이동하는 만큼 만약에 이것이 암초에 의한 것이라면 저렇게 중간 후미에서 반파되지 않고 오히려 배 앞면이 상처가 나든지—말씀하신 대로—찢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 배의 뒷부분에서 약간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풍랑이 있기 때문에 함정이 어떻게 좌초가 되었느냐, 또는 암초가 어떻게 위치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鄭玉任 議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이라든지 내부 폭발 가능성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률로 보면 좀 낮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구조된 58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의 정확한 인식은, 그 당시 야간에 일부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가능성도 열어 놓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천안함이라는 것이 대잠 초계함이지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리고 대잠 초계함의 작전활동에는 반잠수정 탐색하는 활동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새폐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폐인 것으로 레이더상으로 판명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鄭玉任 議員** 그런데 국방부 보고에 보면 42노트로 미확인 물체가 날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상으로 가는 것처럼 저희가 레이더에서 본 겁니다.

○鄭玉任 議員 42노트라고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42노트 정도로……

○鄭玉任 議員 42노트 정도면 시속으로 몇 km나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대략 한 70km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鄭玉任 議員 시속 70km면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백령도에 시속 70km로 서식하는 새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정도로 날 수 있는 새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백령도의 조류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상식적으로 그렇게 빠른 새가 있을까라는 의혹이 들면서 특히 백령도에 사는 새 중에 가장 많이 사는 새가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다고 들었는데 살펴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저는 조류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 새가 결국은 북한의 어느 육지를 향해서 날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장산곶 앞쪽으로 날아갔습니다.

○鄭玉任 議員 웅진곶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바로 정면 쪽이니까, 제가 그 지역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제가 무슨 유도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지역에 북한의 잠수정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잠수정기지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鄭玉任 議員 확신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제가 확신합니다.

○鄭玉任 議員 천안함이 그 지역에 있을 당시에 중국의 꽃게잡이 배들도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백령도의 반대쪽

편에 있었습니다.

○鄭玉任 議員 반대쪽 편이라 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백령도가 가운데 있으면 저희 함정이 난파를 하거나 하여간 어떤 사고가 난 그 지역은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백령도의 앞쪽으로 북쪽과 동쪽으로 NLL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NLL을 따라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鄭玉任 議員 중국의 꽃게잡이 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 꽃게잡이 배에 북한의 반잠수정이 몰래 묻어 들어올 개연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도 열려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다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다음에 북한의 반잠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특수임무입니까, 아니면 통상 작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일종의 특수임무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침투용으로 운영이 될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해상작전으로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함정은 아닙니다.

○鄭玉任 議員 북한이 지금 에너지난을 심하게 겪고 있고 또 이 반잠수정이 상당히 위협적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뭐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리고 이 대형 군함에 대해서도 기동업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반잠수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鄭玉任 議員 대형 군함에 대한 통상 기동업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잠수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물론 그 함정이 작기 때문에 함정의 능력은 아주 제한됩니다. 그러나 그 함정이 워낙 작으면서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하고 빠르게 빠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소나탐지체계로도 다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소나탐지체계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한 50%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50% 미만인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다음에 이곳은 우리의 영해였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래서 가정법적으로 바로 북한이 우리가 작전구역이 따로는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대청해전 이래로 우리에게 대한 도발 협박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초계함인 이 천안함이 바로 백령도 후면에서 이렇게 정박하면서 그 기지를 향해하는 것이 통상적인 작전의 일환이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러니까 천안함에 부여된 작전구역이 바로 말씀하시는 백령도의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이 천안함의 작전구역입니다.

○鄭玉任 議員 그래서 반잠수정에 의해서 어뢰의 폭격을 맞았을 가능성, 즉 우리 천안함이 통상 작전 중에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열려 있는데 그날의 기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또 그날 아주 기상이 불량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은 배로 천안함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鄭玉任 議員 가능성은 있으나……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나 하여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가능성 열어 놓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또 좌초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셨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기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 가지고 북한에서 1999년 1차 서해교전 이후에 서해 5도 지역에 기뢰를 매설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서해 5도 지역에 북한이 기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첩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70년대 중반에 적의 상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륙 가능한 지역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폭뢰를 개조해서 전기식 뇌관으로,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기뢰를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후에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鄭玉任 議員 77년에 폭뢰를 전기식 뇌관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몇 발 뿌리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정확한 발 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합참의장을 하던 08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이 불안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죽 훑어 가지고 한 2달 동안에 거쳐 계속 확인한 결과 10여 발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실이 되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거를 못 했고 그래서 제거해 보니까 그 자체가 그 자리에서 폭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폭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치했던 것은.

○鄭玉任 議員 그러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내부 폭발의 가능성은 훨씬 확률이 낮은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 충격 중에서 좌초 어뢰 기뢰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흥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있는데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잔해를 인양해 가지고 물증을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양을 하고 나면 빠르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런데 어뢰든 기뢰든 우리가 인양을 했는데 파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물증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영구 미제사건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하지만 그중에도 영구 미제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영구 미제사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에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그만큼 한미동맹 관계가 긴밀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작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이것도 역시 가정법입니다—북한이 의도적으로 반잠수정을 동원해서 어뢰로 폭격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지도발이지요, 가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작권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시작전 통제권의 영역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기본적으로는 평시작전권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좀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돼서 하나의 전쟁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한미 간에 한미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것도 역시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로 판명이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전작권 내지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주고 미국의 초계함이 됐든 미국의 해군이 같이 작전을 폈다면 과연 이런 도발이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법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북한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발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그렇지만 한미연합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고 또 평시작전권을 저희 한국이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그런 것은 전작권은 미국이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위험성이나 도발 가능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시간이 없어서 이제 구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애간장이 녹아들어갈 정도인데, 이 구조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나 모든 장비에서 최고를 자랑하

는 미국이 바로 그 백령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했을 때 초동대처, 그다음에 구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한 능력 면에서—거기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데—그런 면에서 저희 한국군의 구조능력은 미국보다 절대 못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해야 할 대상이 우리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조대원들이 더 뜨거운 애국심과 가족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저희 능력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구조함도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함하고 같습니다. 같은 유형이고 장비 갖춘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처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제한됩니다마는 현지에 나와 있는 능력으로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鄭玉任 議員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첨단장비로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첨단장비로 구조를 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가지고, 특히 ‘대한민국 해군이 왜 이렇게 구조가 제대로 안 되나’ 답답한 심정으로, 그 영화 신드롬이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억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베테랑 잠수사들도 뻔히 그 자리에 와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것은 자기네들의 안전수칙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고 우리는 우리 장병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지금 구조에 전념하는 것은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조업조건, 안전조업조건에 맞지 않으면 투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별도의 명령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그러한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 장병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함에서 더 많은 줄을 타고 잠수사들이 내려가면 구조가 빠를 텐데 왜 두 줄밖에 못 내려가느냐, 지금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선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 그 선미의 배의 폭이 대략 한 10m 이내입니다. 그래서 폭이 작은 배가 물 속에 잠겨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인도색이라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갈 수 있는 줄을 맵니다. 줄을 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거기는 완전히 암흑세계이기 때문에 줄을 매고 줄을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략 한 5.5노트(kn)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대략 시간당 1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줄을 2개를 넣었더니 줄이 엉킵니다. 줄이 엉키게 되면 이 자체가 들어가는 잠수사들이 그 줄의 엉킴에 의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오늘인가 칼럼에도 나왔던데, 잠수를 하게 되면 어느 한계 이상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만큼 신체적인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거기의 그 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개를 하지 못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전부 더듬어서 그것을 모든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려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산소통을 2개를 매고 들어가는데 그 산소통에 공급한 산소의 양이나 또 저체온증, 몸이 계속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저체온증이나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조건도 2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분만 되면 무조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고인이 된 사람과 같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팀이 한 7,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도 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오자마자 바로 의사가 필요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진행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기다려 주시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그 사고지역의 물살이 전 세계의 3위에 해당할 만큼……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고인이 되신 한주호 준위 같이 살신성인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지금 그 구조작업에 뛰어들어 많은 해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 분들의 주장인데 함미의 침몰 확인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鄭玉任 議員** 그런데 이 탐색용 기뢰 제거함이, 옹진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착하는 데 자그마치 이틀이나 걸렸다 이것입니다. 진해에서 오느라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래서 앞으로 추가 전력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지정함대 배치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직 제가 정확하게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탐색구조를 할 수 있는 구조함이나 또는 지금 운용할 수 있는 기뢰 탐색함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배치계획을 새로 조정을 해서 보다 빨리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다음에 군이 비판 받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교신일지의 공개, 또 TOD 영상 공개를 할 때 이게 군사비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또 단계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

터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국가안보에 위해가 돼서 도저히, 교신일지를 포함해서입니다.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면 차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저희도, 그런 질타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라리 이걸 안 보여드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감시장비나 교신일지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군이 운영하는 방안이 보입니다. ‘아, 군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기술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국민한테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희하고 지금 교전의 상대인 북한에도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그것에 맞게끔 저희의 모든 수단이나 이런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저희한테 굉장히 앞으로의 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전문가들인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저희가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천안함이 침몰을 할 때 함수 부분에 있던 승조원들은 거의 다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함미 부분은 구조가 되지 않고 그냥 침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鄭玉任 議員** 그런 상황에서 천안함의 이함 관련 매뉴얼, 또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상이함 절차가 명령 자체를 함장만 내리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빨리 이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 위기대응 매뉴얼은 지금 각 부대가, 또 각 함마다 상세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시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104명의 장병들 중에서 왜 58명만을 구출하고 나머지를 다 수장했느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58

명은 이쪽 함수부분에 있던 병력 중에서 1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해낸 것입니다. 그때도 결국 배가 가라앉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잘 조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깥에 물에 떨어져 있는 수병은 하나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 조치가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잘라져 나간 함미 부분이 너무 급작스럽게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저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구조노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함미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46명이 실종된 상태로 있는데 이분들이 X, Y, Z로 되어 있는 격실을 제대로 닫고 있다면,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만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그런 가정하에 지금 저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다음에 펴 속에 박혀 있는 함수와 함미 이것에 대한 인양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세부적인 인양계획을 발전을 거의 다 시켜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t급하고 2200t급하고 2개를 동시에 양쪽에서 빨리, 왜냐하면 하나 하고 하나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2개를 각각 2개의 크레인과 나머지 각종 자재를 다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가장 답답하신 분들이 실종자 가족 분들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브리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현재 2함대에서 매시간 상황이 있는 대로 바로 바로 브리핑을 해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정기적인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함대에서는 대략 거기 계신 분들이 삼백오십여 분 계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같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든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잘 설명을 드려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이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가슴 아프고 빠른 시일 내에 인명을 구조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실종자 가족을 다루는 대응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앞에 처음 들어오실 때 막는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병사가 그분들에게 총을 겨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불편을 드린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여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 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이런 것들은 지금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작업을 오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계획을 즉 추진하고 작업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아마 어려운 순간이 올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구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와 인양과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심이 아주 어려운 결심이고 또 구조되어야 할 실종자들의 부모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은, 친지들은 굉장히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선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그것을 잘해서 인양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조와 인양을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것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議員 실종자 구조가 가장 우선순위를 뒤야 되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다음에 원인 규명입니다. 정확한 진실 규명 시간이 얼마나 걸리리라 예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가장 정확한 것은 인양이 되어야만 정확한 것이 결정, 확실한 물증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양이 전에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실 때는 바로 바로 보따리 싸는 식으로 한두어 시간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결박하고 그것을 하는 데에도 여러 날이 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물 위로 끌어올리고 또 거기에서 물으로 가져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사례를 겪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니만큼 정확한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인양 후에 실제적 진실을 규명할 때, 물론 진상조사단에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물증을 확보할 때 그동안에 일부 착오로 국방부의 대응에 많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구성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분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鄭玉任 議員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고맙습니다.

○鄭玉任 議員 천안함이 침몰한 지 일주일이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확실한 침몰 원인,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구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단지 확실한 것은 천안함이 작전 기동 중에 침몰했고 46명의 장병들이 실종됐다는 것뿐입니다.

국가 방위의 사명을 위해서 차가운 바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된 장병들,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한 고 한주호 준위,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들의 애국심, 국가를 향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고 제대로 배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실종된 장병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 구조해서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박상돈	박상천	박영선	박영아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중표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송훈석	신낙균	심대평	심재철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선호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성남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이용희	이은재	이재선	이정현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서중표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송영선	송훈석	신건수	신낙균
이화수	이희창	임동규	임해규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장광근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규백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정진석	정진섭	정하균	정해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원희룡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조진형	조해진	진성호	진영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차명진	최구식	최문순	최병국	윤영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최연희	최영희	허원제	허태열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황우여	황진하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강승규·권영길·안형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4인, 기권 의원 없음)

○출석 의원(250인)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80인)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선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립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소남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장수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훈석 신낙균 신성범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허원제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74인)

강명순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영길 권영진 김금래 김동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조
 김소남 김영선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나성린 노영민 박근혜
 박병석 박보환 박영아 박주선
 변웅전 송민순 송훈석 안상수
 양승조 우윤근 원희목 이강래
 이낙연 이두아 이정현 이종혁
 이영희 이윤성 이해봉 임해규
 이주영 이진복 이해봉 전현희
 장광근 전병현 전여옥 정의화
 정범구 정수성 정옥임 조문환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차명진
 조순형 진수희 진영 최연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홍사덕 황우여

○청가 의원(18인)

강길부 강창일 김동철 김세연
 성윤환 송광호 송영길 유기준
 유재중 이철우 임영호 조경태
 조영택 주광덕 최재성 최철국
 한선교 허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입법차장 안병욱
 의사국장 장이종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운찬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방부장관	김태영

【보고사항】

○의안 제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권경석·김성조·노철래·윤영·정해결·정희수·정두언·신성범·정갑윤·김정권·여상규·김재경·조진래·김소남·이인기 의원 발의)

4월 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신학용·고승덕·양승조·김성곤·김영진·유성엽·조승수·김동철·유기준·김상희·우제창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장제원·유기준·강명순·신학용·이성현·안효대·현기환·정갑윤·원유철·김세연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김우남·강기정·김을동·조경태·김영록·이윤석·김동철·최규식·강창일·김재윤·최규성·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김우남·강기정·김을동·조경태·김영록·이윤석·김동철·최규식·강창일·김재윤·최규성·양승조 의원 발의)

4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이화수·한선교·신학용·김성태·정해결·박대해·박준선·노철래·이사철·원유철·정영희 의원 발의)

4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김혜성·박은수·노철래·홍정욱·

송영선·정동영·김정·이찬열·김태원·문학진·윤상일·손범규·이해봉 의원 발의)

4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김혜성·노철래·정하균·신건·김정·이해봉·김태원·윤상일·정영희·김을동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김혜성·노철래·정하균·신건·김정·송영선·김태원·윤상일·정영희·김을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김혜성·노철래·정하균·신건·김정·송영선·김태원·윤상일·정영희·김을동 의원 발의)

4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오제세·김용구·안민석·김재윤·이한성·신상진·이찬열·이성현·김영진·박상돈 의원 발의)

4월 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임해규·김영진·김세연·정두언·박보환·서상기·이군현·정영희·안민석·진수희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김춘진·김영진·안민석·백재현·박지원·원혜영·최재성·양승조·안규백·박선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김혜성·노철래·홍정욱·김정·김태원·윤상일·손범규·김을동·박선영·정하균·이한성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이은재·박준선·김소남·장제원·나성린·박보환·이학재·강석호·신지호·

강성천·윤석용·이범래·여상규·권경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2010. 4. 1 손숙미·김을동·서상기·조진래·유재중·정갑윤·김소남·원희목·전현희·윤석용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이은재·박준선·김소남·장제원·나성린·박보환·이학재·강석호·신지호·강성천·이범래·여상규·권경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 정부 제출)

4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2010. 4. 1 이은재·김소남·이정선·박준선·장제원·나성린·박보환·이학재·강석호·신지호·강성천·윤석용·이범래·김춘진 의원 발의)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이은재·김소남·이정선·이두아·원유철·박준선·장제원·나성린·박보환·이학재·강석호·신지호·강성천·이범래·김춘진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2010. 4. 1 김동철·박주선·김우남·강기정·양승조·최철국·조영택·최규성·조배숙·우윤근 의원 발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 발의)

(2010. 4. 1 임해규·김영진·김세연·정두연·박보환·서상기·이군현·정영희·안민석·진수희 의원 발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이은재·김소남·이정선·이두아·

원유철·박준선·장제원·나성린·박보환·이학재·강석호·신지호·강성천·윤석용·이범래·김춘진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이은재·박준선·김소남·장제원·나성린·박보환·이학재·강석호·신지호·강성천·윤석용·이범래·여상규·권경석·김춘진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28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 4. 1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30일간)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2010. 4. 2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인사청문요청안

(2010. 4. 2 대통령 제출)

4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2010. 4. 1 안상수·이강래·류근찬·노철래 의원 외 278인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운영실적에 관한 질문서

(2010. 3. 31 황영철 의원 제출)

청송교도소에 관한 질문서

(2010. 3. 31 정해걸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09회계연도 대한적십자사 세입·세출결산서

(2010. 3. 31 대한적십자사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2010. 3. 31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10. 3. 31 한국은행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및 2010년 시행계획

(2010. 4. 1 정부 제출)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